

수용자 종합문예지

통권 459호 | 2022 가을호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직원 서 | 테마원고 | 수필 | 기획기사 | 용서의 굴 | 시 | 독후감 | 수기 | 소감문 | 서간문 | 감상문

2022 | 가 을 호
통 권 459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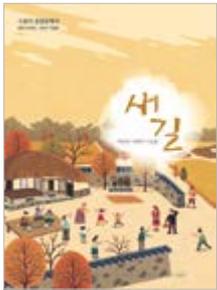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2022년 가을호 (통권 459호)

1948년 4월 1일 창간 2022년 9월 23일 인쇄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 111-1270000-000299-08

편집인 : 한태환 인쇄 : 서울남부교도소

디자인실 : 한양애드 (02)2279-0814

우편번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회복귀과 : (02)2110-3363

* 원고는 각 교정기관 담당자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목차

직원 시

- 04 가을 하늘 | 홍성교도소 교위 정우성
- 05 가을 하늘 | 전주교도소 교도 유상호
- 06 가을아이 | 전주교도소 교위 서주원

테마원고 - 가을 하늘

- 07 가을 하늘 극장 1열 A석 | 황태민
- 08 가을 하늘 | 이준희
- 09 가을 하늘을 추천합니다 | 최성우
- 10 그리움, 가을 하늘 | 김창영
- 11 미술관 같은 가을 하늘 | 전승환
- 12 가을 하늘과 바람 | 전민승
- 13 따로, 또 같은 두 개의 가을 하늘 | 송오현
- 16 가을하늘 | 장효빈
- 18 하이젠베르크의 가을 | 이상진
- 22 6.25와 추풍령 그리고 아버지 | 오명환
- 25 아버지와 가을하늘 | 공하람
- 27 가을 하늘 | 민성미
- 29 가을 하늘 | 엽광무
- 31 가을 하늘 | 강정석
- 33 가을 하늘이 비치면 | 이경로

수필

- 53 할머니의 덩 | 소군호
- 38 은행나무와 어머니 | 박종석
- 41 베풀과 나눔 | 최봉관
- 43 어머니가 내어주신 보리차 | 한동호
- 47 참, 참, 참 | 김유리
- 51 말 한마디의 중요성 | 박충의
- 54 알록달록 물든 꽃을 바라보며 | 신영철

기획기사

- 57 하늘이 내리고 사람이 키우다 인삼과 산삼 | 동덕여대 교수 김상철

용서의 글

- 65 용서를 구합니다 | 김소율
- 67 용서를 구합니다 | 김태중
- 70 용서를 구합니다 | 하수민
- 72 용서 | 이상봉
- 75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 임복실
- 79 진심어린 반성을 위한 깨달음 | 김재우
- 81 용서의 글(가을 하늘) | 김선규

시

- 83 바지랑대 | 박완규
- 84 청송의 계절 | 정종기
- 85 가을, 고요한 바다 | 목진호
- 86 아버지 | 박자호
- 87 풍난 | 안철호
- 88 열 개의 밤중에 | 민경근
- 89 어머니의 얼굴 | 이상구

독후감

- 90 「파운틴헤드」를 읽고 | 홍가람
- 94 「퀀텀 라이프」를 읽고 | 이수호
- 97 「천 개의 파랑」을 읽고 | 양도영
- 101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고 | 곽영진
- 104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를 읽고 | 노장현

수기

- 108 작은 여름창문 | 김경미
- 111 40년 전.. 그리고.. 아버지의 흥시 | 박성현
- 113 용서와 잊혀지지 않는 것들 | 조효선

소감문

- 115 내 생애 첫 수감생활 | 이종현
- 118 집중인성교육을 끝내고, 내 자리로 돌아오며... | 윤현로
- 120 나의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 이호석
- 122 새길 수용자 종합문예지 2021 가을호를 읽고 | 전용현

서간문

- 124 미안하다 사랑한다 | 차재현

감상문

- 127 새길지 여름호를 읽고 | 송현윤

가을 하늘

정우성 | 흥성교도소 교위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한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면
파란 호수가 공중에 떠 있다는
요상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가을 하늘 속 하늘 호수
얼마나 넓고 깊을까요?
갑자기 마음속 돌멩이
하나 꺼내어 봅니다.

지난날
후회의 돌멩이도 던져보고
근심의 돌멩이도 던져보고

천천히 가라앉아 점이 되어
사라지는 돌멩이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수많은 돌멩이를 품은 가을 하늘
누군가의 삶의 무게를 비워주려고
오늘도 그렇게 깊고 푸르른가 봅니다.

가을 하늘

(부제: 교도소 인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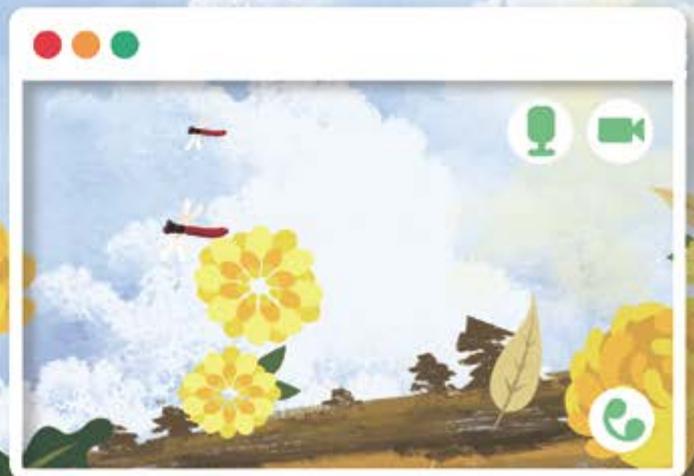
유상호 | 전주교도소 교도

가을바람이 소슬하니?
가을 하늘 보고 눈시울 울컥

가을 타지 마라
저 잠자리 열심히 진동하는 투쟁을 보고
나 기꺼이 희생하는 국화 향을 흠뻑 맡아보아라.

그때! 그 가을하늘 꼭 담아
'좋아요'를 눌러봐

그래, 그게 추천(秋天)이지!



가을아이

서주원 | 전주교도소 교위

세상 만물이 낳아지는 풍경
싹을 틔워 햇볕과 물을 먹으며 바지런히 자라
세상에 나온 너

넌 그렇게 소중하게 길러진 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
그리고 누군가에 양식이 될 소중한 생명

가을바람 타고 온 스산한 마음을
알록달록 채색 가득 채워 주는 존재
풍성함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는 존재

이 가을 지나 혹독한 엄동설한 일지라도
언제가 다시 무르익을
넌 더욱 그렇게 소중한 존재



가을 하늘 극장 1열 A석

황태민

가을 하늘 스크린에 상영될
영화를 기대하며
가을 하늘 극장 1열 A석인
산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본다

가을 하늘 극장 1열 A석까지
떨어져 있는 낙엽을 레드카펫 삼아

가을 하늘 극장 1열 A석까지
반짝 거리며 길을 더 밝혀주는 이슬을
조명삼아

가을 하늘 극장 1열 A석까지
지저귀는 새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어둡고 흐린 공포영화보다는
맑고 푸른 청춘 로맨스 영화가
가을 하늘 스크린에 상영되길 기대하며
오늘도 가을 하늘 극장 1열 A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본다.

작품평

가을 하늘이 커다란 스크린이었네요. 다양한 생의 드라마가 상영되는 하늘 관람은 무료겠지요. 새소리로 배경음악을 깔고 레드카펫 낙엽을 밟는 시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 편의 로맨스영화가 상영되는 가을은 그 어떤 영화보다 풍요롭지 않겠는지요. 오늘 밤엔 저도 밤하늘에 상영되는 영화를 볼 작정입니다.



가을 하늘

이준희

온몸으로 사랑했기에
후회없이 이별하는 낙엽이다.

잠깐 피고 지는 벚꽃이나
양지에 내린 눈도 아닌, 그렇다고

담벼락 가득 덮은 담쟁이도
늘 붙어있는 시침 분침같은 사랑도 아니다.

뜨겁게 사랑한 뒤에도 낙엽은
기꺼이 거름이 되는 것도 모자라

끝내 9월의 메마른 하늘마저도
저마다의 빛바랜 사랑 이야기로 물들이니

서쪽 하늘 산모퉁이엔 오늘도
단풍같은 추억이 한가득 쌓여있겠다.

작품평

낙엽은 나무가 긴 겨울을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을 사랑하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다 주는 가을 하늘처럼 쓸쓸해도 우리의 사랑은 단풍처럼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해가 지는 서쪽 하늘, 붉은 얼굴로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노래하는 시인의 가을 하늘이 보입니다.





가을 하늘을 추천합니다

최성우

가을 하늘을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합니다.
그 푸르름 속엔
한가위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풍성한 차례 음식
두둑한 용돈
그리고 고추잠자리

아직은 어색한 새로 산 긴소매 옷 무색하게
구르고 뛰어다녀 반나절 만에 험 옷 되어도
웃으며 다시 깨끗이 빨아주시던
어머니의 손길까지

푸른색 하늘, 흰 구름만으로
그 모든 걸 떠오르게 하는
가을 하늘을 추천합니다.
추천(秋天)을 추천합니다.

작품평

가을 하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을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만물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겨울을 향한 준비를 하는 계절, 가을은 어머니의 넉넉한 품 같습니다. 흰 구름이 소환해주는 그 모든 것, 올가을엔 하늘과 벗하는 날이 많도록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움, 가을 하늘

김창영

몇 해 전이었던가

아이들과 애들 엄마와

메밀꽃 필 무렵 봉평을 출발하여

지금은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강원도 어느 국도, 산 속 구불길을 따라 나선

자동차 여행

구불길에 비추인 파랑기만 한

가을하늘길을 따라

월정사를 지나

오색약수를 지나

소금강을 지나

마주친 속초 바다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을 확인하며

아련한 것 같은 가을 냄새를 맡다

감았던 눈을 이곳이 떠 창 밖을 보매

눈에 맺히는 것은

그 파아란 가을하늘, 그리움

작품평

누구에게나 가족들과 함께했던 여행은 잊을 수도 잊히지도 않는 추억입니다. 언제 무엇을 함께 바라보았는지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움이 아니겠는지요. 추억 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시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그 아름다운 추억을 소환해주는 거울이었음을 알게 해준 시입니다.

미술관 같은 가을 하늘

전승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문득 올려다 본 하늘

노을 이라는 연붉은 배경에
구름 이라는 하얀 물감이 더해져
초저녁 이란 작품이 만들어 지고

자기 전 침낭에 누워
문득 바라 본 하늘

밤 이라는 검은 배경에
별님과 달님 이라는 은색 물감이 더해져
밤하늘 이라는 미술품이 만들어 지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점의 예술품 같은 가을 하늘은
나의 미술관

작품평

바삐 사느라 하늘 한 번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저녁 하늘과 깊은 밤하늘은 누구의 화폭일까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늘을 오래 바라보는 시인의 화폭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보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야말로 예술작품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가을 하늘과 바람

전민승

가을의 하늘에는
파란 자유가 있고
곁에 있는 구름에는
뒤를 밀어주는 바람이 있네

그 바람은
같은 하늘보며
그리움 실어보낸 이의
소박한 바람을 따라

자유롭게 창살 사이 드나들 때
내 콧잔등을 간지럽히고
살 희망을 불어넣는
자유로운 전령사.

비록 좁은 방 안
한 뼨의 가을 하늘이지만
나의 영혼 또한 바람처럼
자유로이 창살을 드나든다.

작품평

하늘을, 바람을 가둘 순 없겠지요. 비록 한 뼨이지만, 한 뼨만으로도 충분한 자유와 자유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하늘과 바람처럼 가둘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자유처럼 구름의 바람처럼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벗이 아닌가 싶습니다.

※ “테마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따로, 또 같은 두 개의 가을 하늘



송오현

나는 초호화 별장에 살고 있다. 특히 가을하늘 아래의 이곳은 공기 좋고 물 맑은 소나무로 둘러싸인 피톤치드 가득한 산 아래 위치하고 있다. 수백 평의 토지 위에 대 전원주택에 대통령 경호에 버금가는 삼엄한 경비가 지키고 있으며, 24시간 작동하는 경보장치와 24시간 항시 대기 중인 특공대까지 곳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철저히 지키고 있다.

영양사로부터 매 식사에 충분한 영양이 섭취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체계적인 식단공급을 받으며, 하루 30분 나의 트레이너는 나의 건강을 위해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운동시간을 함께 보낸다. 하지만 미세먼지나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오미크론을 흡입하게 될까 봐 30분 이상의 바깥공기는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실내로 나를 경호하며 안내한다. 또 지식과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하루 몇 시간쯤은 글을 쓰고 독서를 하며 자유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예고없는 테러에 대비하여 외부의 음식이나 물품들은 철저한 검열과 검품을 거쳐 반입되며 그것마저도 철두철미하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또, 가끔은 내가 심심하지 않게 친구들도 넣어준다. 그 친구들은 내가 고를 수 없게 나이와 상관없이 넣어주기 때문에 심심할 틈이 없다. 그래 여기는 궁궐이다. 나는 궁궐에 살고 있다.

아... 최면에 쉽게 걸리지가 않는다. 암만봐도 징역이다.

낮에는 분명 멀쩡했던 동생녀석이 바로 옆에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댄다. 최근 들어 주님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요청하는 기도가 생겨났다. 제발 오늘만큼은 내가 먼저 잠들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다.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이곳 수용시설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가을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남은 궁궐 생활 만큼은 유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 누가 만들어 낸 말일까. “천고” 가을 하늘이 봄이나 여름보다 높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까. 라는 영똥한 질문들을 하며 멍 때리는 중이다.

옆구리에 두툼한 책 한 권 끼고 어울리지 않는 문학도 흉내도 내어보고, 운동장 돌계단에 누워 가을하늘은 진짜로 높은지 한쪽 눈을 감고 한 뼘, 두 뼘 재어본다. 괜한 감성에 젖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가을하늘’에 대한 글을 공모한다는 방송이 들려온다.

기왕에 문학소년 아니, 문학중년 흉내 내는 김에 조금 부실하긴 해도 새길지에 이름 한번 올리는 작가 타이틀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가을하늘... 어떤 글을 써야 할까 고민하다 벽 너머의 세상을 뜻하는 “담장”을 보고는 제목을 정했다. “따로, 또, 같은 두 개의 가을 하늘”

먼저 글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았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일과를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교정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수용자의 입장에서 재미있게 비유해 본 글과는 다르게 직원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멀쩡한 상태일 때보다는 엉망진창이거나 사고뭉치로 기억되는 사건·사고들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함을 전해본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눠보자. 담장 밖 가을하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하늘 아래서의 나는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았다. 별것 아닌 일로 허세를 부릴 때도 있었지만, 꽤 대단했던 무용담들을 꺼내어 들려줄 수 있는 ‘경험’이라는 캔을 제법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각기 다른 경험이라는 수많은 캔을 두 번의 가을을 맞이하는 동안 잘 정리하고 갈무리해서 경험 자판기라는 걸 만들어 보았다. 이는 언제 누구와 대화하든, 어떤 업무를 하게 되든, 관련이 있는 캔 버튼을 선택하고 뽑아 대화의 소재로 녹여 낼 수 있는 자판기. 4차 산업 시대에 어울리게끔 ‘AI멀티자판기’로 이름을 정했다. 즉, 다양하고 세분된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자산이 된다는 뜻인데, 이는 곧 쓸데없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신 이 경험 캔의 종류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을수록 전문 비즈니스 영역이나 인생 및 연애 상담 등을 통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지인들과의 수다에는 적절한 조미료 같은 맛을 내어 주기도 한다. 또 한번의 가을을 보내고 있는,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두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생각의 정리라는 ‘결심’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나만의 경험자판기 만들기를 말이다.

마지막으로 출소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다로 나아가야지만 배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요. 잠시 정박 중인 이곳에서 항해를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목적지는 정하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뱃고동을 울리고 출발하십시오. 바다는 넓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한 여러분의 새로운 항해의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담장 안 가을하늘 아래서 새롭게 펼쳐질 또 다른 가을하늘을 꿈꾸며….

작품평

○○구치소를 초호화 별장이라고 하면서 풀어나가는 입담이 너무나 재미있어 낯을 잃고 들었습니다. 수용시설이 천국일 리는 없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도량도 될 수 있고 교육기관도 될 수 있고 인생 연수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생녀석이 코를 꽤 심하게 고나 뱉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먼저 잠들 수 있기를 빌고 있으니 참으로 힘든 나날일 겁니다. ‘나만의 경험자판기’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다. 그대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겠는데요.



가을 하늘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의 힘)

장효빈

가을에는 화려한 색깔이 있고, 높고 다양한 멋의 하늘이 있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 한 번 제대로 올려다 보지 못한 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빌딩 숲속에서 스마트폰을 무기삼아 일했고, 사무실 모니터 사이에 파묻혀 살았다. 그렇게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모르고 지내다가, 많은 것들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가을의 깊은 그리움을 깨닫고 있다. 또한 여름 겨울과 확연히 다른 깊은 여운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나는 최근에 오른쪽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진단을 받은 '우안 전맹', 시각 장애인이다.

어디서부터였을까? 10년이 넘게 사업을 하며 수 많은 도전을 즐기고, 완벽함을 추구했던 나는 완벽주의자이자 일 중독 말기 환자였다. 누군가는 번아웃을 토로했지만, 적어도 나에게 그런 것은 사치로 느껴졌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과한 경쟁을 부추기지도, 더 해야 한다는 채찍질을 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하고, 적어도 내가 시작했다면 끝을 봐야 하는 완벽주의를 추구했다. 그래야 마음이 놓이고 편안했다.

당시에는 실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운이 좋아서 큰 좌절이나 실패가 없었다. 운도 실력이라고 자만한 적도 많았다. 그러다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시작되었다. 회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쓰나미가 들이쳤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았다. 견고했던 성이 모래성처럼 쓸려나갔다.

그러던 중에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잠시 피곤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반복되는 실신과 깨질 것 같은 통증이 찾아왔다. 그 후로 수십회의 입원과 검사를 통해서, 오른쪽 눈이 회복할 수 없는 실명 상태에 이르렀음을 통보받았다.

더 이상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에는 한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 버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만 많이 힘들었고, 아팠으나 무너지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을 보내고 난 후, 휠체어 위에 앉아 운동장에 핀 꽃 한송이를 보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의 본질을...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한다. 그 과정을 거치며 본인을 객관화하고 성찰하기도 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다고 말한다. 과거에 나도 그랬다. 하지만, 어쩌면 그 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정도의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화의 오류이다. 적어도 내 경우엔 그랬다. 실패를 복기하며 자책하고 반성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실패한 주인공이 “스스로에게 전하는 위로”다.

사람의 정신과 신체는 유한하고 생각보다 약하다. 따라서 반성과 동시에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신에게 따스한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아는 능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단순한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한쪽 눈으로 찡그리며 올려다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지혜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어떤 울림이 있을지는 읽는 이의 몫이지만 내 나이 마흔하나에 한 쪽 눈을 잃으면서 깨달은 작지만 큰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한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가 힘이고, 또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다.

작품평

스스로 일중독 말기 환자라고 했습니다. 빌딩 숲속에서 스마트폰을 무기삼아 일하고 사무실 모니터 사이에 파묻혀 살 때는 인생의 가치가 돈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가 봐요. 오른쪽 눈이 멀고 사업은 급전직하, 바닥 모르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마흔하나이이고 한쪽 눈 시력이 지탱하고 있으니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따뜻한 위로의 말을 자신에게 전하는 계시다고요. 해낼 수 있어. 자신에게 그 말을 함으로써 힘을 내고 계시는 그대를 응원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가을 (Autumn of Heisenberg)

이상진

2010년, 뉴욕북부 오스위고에도 가을이 왔다. 그 시절 나는 뉴욕〇〇대에서 파견학기 이수중이었다. 참가자리에 앉아 양자역학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으로 가을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의실은 온통 햇빛으로 찬연하게 빛났다. 강의가 시작되었다. 교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기본질서인 아원자를 설명하셨다. 현대물리학의 주류인 양자역학을 올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물리학자인 슈뢰딩거와 수학적 정리 안에서 확률로써 현상을 예측하는 독일 천재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양자역학이 증명하는 세상의 현상을 이해하는데는, 철학과 시적인 순간이 필요하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뜻 이해되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꼭 이해하리라 다짐했다.

강의가 끝난 후, 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캠퍼스 안은 온통 가을이었다.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불어오는 선연한 가을바람이 내 길어난 머리카락을 형클어뜨렸다. 완연하게 바뀐 아름다운 계절과 원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그 시절 나는 지성의 가을은 해산될 수 없다 생각했고, 나의 사계(私計)도 비로소 궤도에 오르는 중이라 믿었다.

강의시간 이외에는 중앙도서관에서 살았다. 슈뢰딩거와 하이젠베르크의 논문과 학술자료를 찾았다. 스물다섯살에 독일역사상 최연소로, 라이프치히 대학교수로 임용된 하이젠베르크의 천재성을 경외했다. 물리학에 천착한 그의 삶에서, 인간의 정신은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를 의문했다. 양자역학책을 보며 밤낮없이 치열하게 공부했다. 공부하다 지칠 때면, 실천 지성인 사르트르와 베단타 철학의 거장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었다. 그들의 책을 읽으며, 숭고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꺼지지 않는 도서관 불빛과 배움이란 필연의 길을 따라 집요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았다. 펜을 너무 오래 잡은 손가락은 비록 흥하게 휘어졌고, 피로한 눈꺼풀은 쉽 없이 경련했지만, 결연한 의지로써 세운 생각의 질서는 나를 강하게 지탱해주었다. 강의를 듣기 전, 나는 우주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관점인 결정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근대 물리학에 익숙했다. 미시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나무 잎사귀들의 색채가 명징하게 물들어가는 어느 가을날, 강의실안의 내 노트위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스어 문자 ψ , 프사이로 읽고 '파동함수'로 명명한 슈뢰딩거 방정식의 핵심적 항이 필기된 노트 한 부분이 빛으로 반짝거렸다. 파동함수는 측정될 수 없고, 그 궤적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자신이 발견한 방정식에서, 결정론적 세계관을 가진 슈뢰딩거는 이 파동함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을 남겼다. 이 모순을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로 증명했고, 이는 현대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주류로 자리매김하는 코펜하겐 해석의 계기가 되었다.

순간, 섬광 같은 이해의 빛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무엇인가를 이해한 듯한 느낌이었다. 강의가 끝나고,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다. 붉은 노을로 물든 가을 하늘이 아름다웠다. 가을 하늘의 아원자 같이 수많은 붉은 입자들이 내 머리에, 내 어깨에, 내 발등에 내려앉았다. 타지에서 홀로 공부하는 나에게 가을 하늘은 따스한 위로였고, 치유였다. 파견학기 이수 후 나는 졸업했고, 사회로 진출하였다. 긴 시간이 흘러갔다. 행운의 여신은 내 손을 들어주었다. 좋은 이들의 도움과 치열한 노력으로 나는 성공을 누릴 수 있었다. 지속된 성공 속에서, 지난날 땀흘려 이룩한 날카로운 나의 세계관은 녹슬어 무디어졌다. 나는 무엇인가 흘린 듯,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물질의 소유와 풍요로움의 향유라고 여겼다. 결국 욕심과 교환한 화폐의 대가로 나는 구속되었다.

지난 순간들이 후회와 미련으로 점철되어, 육체와 정신이 바닥을 찻던 진창 같은 어느 날이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접견을 오셨다. 접견실에는 어머니와 나 사이에 투명한



아크릴판이 있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없었다. 아무리 가까이 가도 서로 닿을 수 없었다. 무기물에서 생명이 발생하여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 소요된 45억년. 그 만큼의 무한한 거리가 어머니와 나 사이에 있었다. 순간 눈물이 솟아나, 주변이 안개 속처럼 뿌연게 흐려졌다.

접견 후 운동시간이었다. 사금파리처럼 산란한 마음으로 운동장을 걸었다. 맑은 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나를 비추었다. 가을 하늘의 아원자 같이 수많은 입자들이 파리한 내 얼굴에, 내 어깨에, 내 발등에 내려앉았다. 낮설지 않은 포근한 감각이었다. 요동치던 내 머릿속은 차분해졌고, 내면의 파동은 점차 고요해졌다. 가을 하늘은 나에게 내면의 위로였고, 상처난 영혼의 치유였다. 나는 그렇게 회복되어갔다. 그 순간, 계시처럼 지난날 가을의 하이젠베르크가 불현듯 생각났다. “세상의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이젠베르크는 말했다. 잊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경외했던 하이젠베르크.

1925년 9월, 하이젠베르크는 「물리학 시보」 33호에 양자역학을 최초로 정식화한 논문을 발표한다. 그 이후 단 한번도 반증되지 않았던 그의 위대한 ‘불확정성 원리’속에서 우주의 질서는 존재하고, 미래는 변화한다. 다시 말해 절망의 심연 속에 있는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이 아니다. 나는 무한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를 포함하여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의 미래는 반드시 무한히 확장되어, 눈부시게 빛날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인간의 존재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기에 인간에게는 본질이 없다.”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 지성인 사르트르는 말했다. 이를테면 연필의 본질은 필기하는 도구이고, 의자의 본질은 앉는 가구이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이유가 없다. 역설적으로 인간이란 ‘본질로부터 절대적인 자유를 선고 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 숭고하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통념과 주변의 시선에 갇힌 삶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방된 우리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무한히 확장해 나가, 찬란한 인생의 ‘새길’을 걸으며 다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법무부 수용자 종합문예지 ‘새길’이 우리에게 주는 경이로운 ‘문학적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을. 자유가 제한된 환경에서 최후의 자신을 지키고 싶은 작은 소망과 삶의 희망, 그 입계에서 노력하는 보석처럼 빛나는 모든 수용자들에게 이 글이 공명하여 닿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시련의 시간에서 나와 함께한 칼릴지브란의 영시로

이글을 마친다.

You are like a flower that grows in the shade; the gentle breeze comes and bears your seed into the sunlight, where you will live again in beauty.

너는 음지에서 자라는 꽃과 같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네 씨앗을 햇빛 속으로 나를 것이니, 너는 그 햇빛 속에서 다시 아름답게 살게 될 것이다.

Khalil Gibran,
“of the Martyrs to Man’s Law”

작품평

12년 전, 뉴욕○○대에서 공부할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뢰딩거와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에 대한 강의를 들은 무렵이 가을이었다고요. 미시세계를 구상하는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를 가슴에 새겼더라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접견 후의 운동시간에 만난 가을 하늘이 제공한 치유력을 십분 느끼게 되었으니 그곳에서 그대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6.25와 추풍령 그리고 아버님

오명환



올해 8월 초에 돌아가신 아버님은 6.25전쟁 발발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학생이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아버님이 계셨던 ○○까지도 인민군이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이미 전선은 경상도 지역으로까지 밀렸던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때, 아버님은 한 학년 선배 두 분과 함께 자원입대하고자 하여 가족들의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일주일 분의 식량을 준비한 뒤에 무조건 최전선 방향인 ○○령 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어렵사리, 마침내 ○○령까지 도착했고 당시 계속 후퇴해 오면서 전열을 정비 중였던 군부대에 들어가 입대 절차를 밟고자 했으나, 미군 통제관이 대뜸 17세 이하는 입대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입대불가 판정을 받았기에 다시 돌아온 길로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물론, 같이 갔던 선배 두 분은 참전하셨고 한 분은 전사하셨으나 한 분은 생존하시어 아버님 장례식에도 오셨습니다.

비록 입대는 거부당했기에 다시 귀가해야 했지만, 그 여정은 갈수록 불리해졌던 전황 탓에 위험천만한 것의 연속이었고, 무엇보다도 만약 인민군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즉시 강제징용당할 수도 있는 양 극단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하게 귀가하셨는데, 약 한달 쯤 후에 학도병도 출전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가셨는데 거기에는 ○○산

전투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인민군들은 인천상륙작전에 의하여 급격하게 붕괴되면서 북으로 후퇴하거나 일부 전략 거점에서 저항하는 양상이었는데, 서해안 쪽에서는 지리산 및 대둔산이 인민군 잔당들에 반격의 교두보로 삼아 격렬하게 접전이 벌어졌던 때였습니다.

특히 ○○산은 우리 군이 서울 방향으로 진격해 갈 때 반드시 토벌해야만 했던 시급성이 있었기에, 미군과 연합하여 대규모 소탕작전이 1950년 가을에 벌어졌고 바로 이 전투현장에 아버님도 마침내 정규군처럼 참여하셨습니다. 사실상, 기초적 사격훈련정도만 받고 인민군과 가장 먼저 맞대고 있는 최전방초소의 '총알받이' 성격의 첩병이었음은 당시 여건상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최근접 위치 탓에, 하루에 쌀 두가마니 정도의 총알을 매일매일 쏘아 댔었고 야간 교전시에 적군총알이 왼쪽 눈 위쪽을 스쳤기에 평생동안 비눗방울같은 상처가 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큰 부상같은 것은 없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산 정상부의 인민군 본부까지 점령했는데, 그때 차마 눈뜨고 도저히 쳐다볼 수 없었던 참혹하기 짝이 없는 장면을 보셨으니 그것은 코가 베어나간 미군 포로들을 매달아 화형시켰던 무수한 잔해였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서는, 미군들의 전투방식이 전혀 다르다면서 일단 접전이 벌어지면 맨 먼저 철모를 벗어던지고 그냥 적 방향으로 사정없이 돌격하고자 서서 뛰어가는 식이기에 희생이 많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산 전투가 끝난 후, 아버님은 정규군인이 아니었기에 귀가하셨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병역의무에 의하여 입대하셨으니 사실상 학생 때 전쟁을 치른 채 전쟁 후에 병역의무를 완성하신 셈이었습니다.

한편, 2000년경에 대둔산 전투에 대한 상세기록이 밝혀지면서 그 당시에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던 아버님의 명단이 드러나면서 아버님은 국가유공자가 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늘 국가유공자 모자를 쓰시고 외출하실만큼 그 자부심과 명예는 아버님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보니, 아버님께서 72년전에 ○○령쪽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지금 이맘때인 듯 합니다. 여러 담당관님들의 배려와 노고에 의하여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고속도로 이정표를 보니

○○령이 마침내 나타났는데, 유달리 그 지역부터 높고 험한 산세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듯한 지형이었습니다.

그 험산준령을 아버님 십대 때 걷고 또 걸어 오직 자원입대할 목적으로 며칠 밤낮을 내려오셨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많은 만감이 교차했었을까 하는 게 대신 조금이나마 느껴졌습니다. 자칫, 가족들과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 외에 아예 싸워보기도 전에 인민군들에게 잡혀갈 극단적 정반대 상황조차 있었으니 그 어린 나이에 한발짝 땀 때마다 천근만근의 무게감이 계속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가지의 아버님의 체험담 자체가 큰 아들로서 명절 때에 인사드렸던 아버지 지인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다시 아버님께 더 여쭙면서 알게 된 편린들 일뿐이고 아버님이 평생 동안 나서서 말씀해주신 바가 전혀 없는만큼, 이제 돌아가셨기에 그 깊은 심정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종시에 저에게 꼭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애타게 찾으셨다고 했지만, 88년의 우리나라 현대역사를 온 몸으로 맞으면서 이제 저 피안의 세계로 가신 아버님은, 끝내 못다하신 말씀을 하시려고 다시 이 ○○령 부근의 ○○에 어떻게든 하루빨리 오시려고 하늘에서조차 새벽부터 행차준비를 하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평상시에 늘 그러하셨듯이.

작품평

주어진 테마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겪은 일들을 살아생전에 해주신 것과 아버지 지인분들이 해주신 이야기를 엮어서 쓴 색다른 수필입니다. 하지만 워낙 소중한 증언이라서 이 지면에 실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자진입대했던 국가유공자의 아들이 수용자가 된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나가게 되면 나라를 위해, 아니 이웃을 위해 작은 일부터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가을 하늘

공하량

이 글은 2016년 9월 가을 하늘에 구름 물고기가 되어 떠나가신 아버지를 위해 바칩니다. 저의 어린시절 아버지와 기억에 가장 오래 잡고있는 소중한 추억들 중 하나가 가족 여행으로 함께 떠난 바다여행에서 아버지와 저희 남매와의 잊을 수 없는 낚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린 동생에게는 목마를 태워주시고 저의 고사리 같은 손은 꼭잡아 주시며 아버지가 자주 가시는 낚시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남매가 편히 있게 하기 위해서 텐트를 쳐주셨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낚시는 정말 재미가 없고 지루한 시간이였기에 아버지가 왜 자주 낚시를 하러가시고, 낚시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와 함께 어딘가에 갔다는것에 큰 의미를 두고 아버지가 쳐주신 텐트 안에서 동생과 놀기 바빴습니다. 낚시의 묘미는 잡히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한시간 두시간이 지나도 잡히지 않고 지루함에 못이겨 스프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아버지가 깨워주셔서 일어나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은 “아빠 물고기 얼마나 잡았어요?”였습니다. 아버지는 멋쩍은 미소를 띄우시며 한 마리도 못잡았다고 하시며 낚시찌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흔들흔들 거리는 낚시찌에 저와 동생, 아버지까지 잔뜩 흥분하며



좋아했는데 걸려온 것은 작은 복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어린 물고기라 더 크면 잡아야 한다고 하시며 놓아주시자마자 기다리던 시간의 아쉬움과 섭섭함이 북받쳐 올라 저희 남매가 큰 소리로 울자 아버지가 돛자리를 깔아 저희 남매를 돛자리에 앉히시고, 저희 남매 양쪽에 누워서 울지말고 하늘을 보며 누워보라고 다독이셨습니다. 울먹이며 아버지의 양 옆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니 높고 푸른 하늘위에 물고기 같은 모양의 구름들이 뭉게뭉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다 낚시는 팡이니까 하늘 낚시를 해보자. 큰고래 잡아보자!”라고 하시며 큰소리로 웃으시며 “고래사냥”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동생이 제일 먼저 고래를 잡았다고 가리키며 좋아하면서 저에게 “누나도 빨리 큰 물고기 잡아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가을하늘 위를 떠다니는 구름 물고기를 가득 잡을 때쯤 아버지의 진짜 낚시대가 요동을 치자 아버지와 저희 남매는 바로 일어나 낚시대를 잡아댕겼는데 큰 고등어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날 낚시 가방에 고등어 한 마리가 전부였지만 구름 물고기로 기분도 마음도 두둑히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물고기가 금방 잡히지 않아 시무룩해서 말수가 줄어들었기에 돛자리를 펴서 아이들에게 누워보라고 하늘 물고기를 잡아보자며 아버지가 저와 동생이 속상해할 때 해주셨던 놀이를 하자 아이들은 곧잘 구름 물고기를 잡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한아름 물고기를 잡아서 보여주고 싶다는 아버지의 모습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나 아이들과 하늘 물고기를 잡으며 하늘을 보니 아버지는 높은 가을 하늘에 당신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근심거리를 하늘을 미끼삼아 던지고 구름 물고기 속에서 해답을 낚으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고있자면 유난히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늘 낚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가을하늘 속 구름 물고기가 되어 저에게 근심거리가 많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음 생에서도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작품평

어린 시절, 가족 여행을 바다낚시로 정했군요. 겨우 잡은 복어를 작다고 놓아준 아빠의 뜻을 그때는 몰라서 큰소리로 울었다고요. 아버지의 대답이 시 한 편입니다. “바다낚시는 팡이니까 하늘낚시를 해보자. 큰고래 잡아보자!” 그래도 큰 고등어 한 머리의 수확이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훗날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가 못 잡자 아빠한테 배운, 구름 물고기를 잡자며 아이들을 달래는 장면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수필 쓰기에 소질이 있으니 계속 써보기 바랍니다.



가을 하늘

민성미



나의 살던 고향은 땅끝 마을로 유명한 전라남도 ○○입니다. ○○읍에서 ○○가는 방향으로 4~5km 가다 보면 읍내에서도 변두리인 곳에 우리마을이 있습니다.

“○○리 205번지”

그곳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민○○ 장로님과 한○○ 권사님의 6남3녀중, 1959년도에 태어나 여섯 번째의 행운아가 되었고 위로 오빠 셋, 남동생 셋, 언니 둘로써 우리 가족 구성원입니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물론 중, 고등학교가 있는 읍내까지는 약 6km정도의 신작로를 걸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크레용도 귀하던 때였지만 천진난만한 때라서인지 하늘은 무조건 파란색으로만 그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고학년이 되어가면서는 하늘이 파랗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몽계구름’이 피어 오르는게 군데군데 그려 넣을 기교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집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가 양봉업을 하셨기에 유채꽃이 필 무렵에 ○○도를 비롯 꽃 찾아 전국을 다니셨기 때문에 늘 그때마다 시골집은 비워두시고 벌과 함께 텐트치고 유랑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집을 비우고 가셔야 할 때마다 집안 다른 살림은 걱정안하시고 오직 ‘숨이불’을 나의 결혼준비물로 만들어놓고 ~목화숨이 귀했던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꼭 친구 어머니 집에 맡겨놓고 가셨다가 돌아와서 다시 찾아오시기를 약 7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27세에 결혼했기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말씀해 주시면서 옛날을 회상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 후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가끔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주뵙지 못한 상황이라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곤하였는데...

이곳에 수용된 후로는 운동시간이면 빠지지 않고 운동장에 나가서 당연히 하늘을 쳐다보며 '오늘은 하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기대하며 '숨을 펼쳐놓은 듯한 가을하늘'을 볼때면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생각에... 불효자가 되어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멍멍해지곤합니다.

반백이 훨씬 지난 내나이 64세.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버팀목 삼아 살아온 나로서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아픔에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척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환자케어'하면서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수용생활하고있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하늘 바라다 볼 때 마다 '아~오늘도 살아있음에, 건강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맞이합니다. 또 감사하는 순간 기쁨의 눈물이 솟구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품평

양봉업을 하신 아버지는 집을 비운 채 전국을 떠돌았다고요. 목화솜이 귀했던 그 시절, 딸의 혼수인 솜이불을 친구 어머니 집에 맡겼다가 되찾아오는 일을 7년이나 하신 그 정성이 놀랍습니다. 30분 운동시간마다 숨을 펼쳐놓은 듯한 가을하늘을 보게 된 것은 분명히 솜이불 덕분일 것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남들을 돌보며 사는 그대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가을 하늘

염광무

저는 ○○시에 속해있는 섬마을에서 태어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2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공장일을 그만두고 ○○으로 오게 됐는데, 당장 먹고 갈 데가 없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19세였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바다에서 오래 떠 있다 보니, 외로움과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배를 타왔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오다 보니, 모든 것이 몸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1983년도에는 친구와 ○○에서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는, 너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엄마가 너를 애타게 찾고 있으니 빨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사무실에 가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고향으로 오는 도중에 이모님을 만났는데,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0일이 됐다.” 하시기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작은아버지께서 저에게 곡을 하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아버님과의 정이 없어서 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갑니다. 다만 저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바로 밑에 동생은 남동생으로 20살이었고, 그 밑으로는 여동생 셋이 있었는데, 모두 세 살 차이가 납니다. 어린 동생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저는 ‘불효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60세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전도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연세가 많으셨어도 이곳에 있는 저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접견 오셔서 내년에도 또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몸이 안좋아서 못 오셨던건지, 그 후로는 어머니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어느날부터 어머니께 등기 서신을 보내면 반송이 오고 재난지원금 상품권을 보냈는데도 반송이 와서, 왠지 불길한 예감에 고충상담 보고전을 내서 이런 이유로 어머니께 전화라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날 담당 주임님께서 담당실로 오라고 하기에 갔더니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전화로 가족관계를 물으시기에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는 곳에 갔더니, 전화 담당하시는 분께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전화하라고 하시기에 어머니의 전화번호인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서 엄마는 어디가고 내가 받느냐고 했더니 돌아가신 지 5개월이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덜컥 하늘이 무너지는 듯 어둠이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주셨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근심 걱정이 확 밀려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이 언제 데려 가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이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위로가 됩니다.

얼마 전에 징별을 받고, 징별방에 있을 때, 어머니 생각이 더 나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운동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높은 하늘을 보면서 혹시나 어머니가 나를 내려다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름 한점없는 하늘을 올려다 보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오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셨어도 그곳에서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머니의 정과 사랑은 넓은 바다보다 넓고 높은 “가을하늘”보다 높습니다. 이 세상과 작별하여 그림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고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작품평

아버지의 임종은 배를 타느라고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의 임종은 옥살이하느라고 지키지 못했네요. 어머니가 전도사여서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이별할 수 있다는 평소의 말이 위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세월을 보낸 어머니의 안식을 위해 이제 그대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을 하늘

강정석

언제부터인가 먼 산 바라보듯 10월만 되면 쳐다보게 되는 하늘은 내가 사랑한 내 짝꿍이었다. 때로는 구름이 되어 웃는 모습으로도 보였고, 때로는 날 부르듯 슬픈 눈을 한 그 모습을 왜 10월의 가을만 되면 쳐다보게 되는지 내게 가을하늘은 슬픈 하늘이었다.

1995년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너를 보았었지. 무엇인가 끌리듯 그렇게 난 너를 품에 안았고 그렇게 우린 가족이 되어 함께 있을 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책을 하며 같이 자고 그렇게 우린 서로에게 끌리듯 늘 함께했었다. 그땐 무엇이 그리 좋았는지 너와 난 다른 가족들보다 서로를 더 좋아하며 아꼈고 잠시라도 눈에 안보이면 서로를 찾듯 이리저리 찾아다녔었지.

그래, 그렇게 우린 오랜 세월을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함께 있으면 눈을 맞추었고 행복해했었다. 1997년 10월 10일. 그날 그 일이 없었다면...

난 너와 함께 늘 하던 것처럼 저녁 산책을 했었고 마냥 좋을 것처럼 이리뛰고 저리뛰며 좋아했었지. 그러던 널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앞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뛰기 시작했고 순간 널 놓친 나는 처음 영문도 모른채 함께 땀 수박에 없었다.

앞에 귀여운 꼬마아이가 널 보며 웃으며 양팔을 활짝 펴고 웃고있었고 널 그 아이를 향해 뛰고 있었지. 그 아이는 널 무척 좋아하고 따르던 앞집에 살던 아이였고 서로 함께 본 순간 기쁜 나머지 네가 그 아이에게 뛰어간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른 채...

넌 횡단보도를 뛰는 순간 지나가는 자동차에 치이고 말았고 난 하늘이 노래진 것처럼 울부짖으며 널 안고 미친 듯이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널 건널 수 없는 곳으로 영영 떠나버렸고, 난 널 잊지 못하고 한동안 술로 괴로워했었다. 그해 가을인 10월 10일. 지금도 10월 10일이 되면 네가 생각나 높은 가을하늘을 보곤한다. 언제나 내 품에 안겨 잠들 때가 많았고 내가 어디 갔다오면 좋아서 팔짝팔짝 뛰며 좋아하며 내게 안겼던 석구...

넌 나의 좋은 짝꿍이었다. 누구는 내게 “그렇게 그놈이 좋냐?” 하고 놀리듯 시샘하며 이야기했지만 내겐 가족이었고 짝이었던 석구는 지금도 가을하늘에 숨쉬고, 뛰놀고 있는 내 소중한 인생에 획을 그어 준 그날의 행복이었다.

내 소중한 사랑스러웠던 반려견 석구야.

높고 높은 가을하늘 구름 위에서 뛰놀려 잘 지내고 있지...?

이 형아가 언젠가 널 보러갈 때 그때는 예전처럼 달려와 내게 안기며 좋아해 주겠지?

지금도 저 가을하늘 구름 위에서 날 보며 그리워할 널 그리며 오늘도 하늘 한번 쳐다본다.

내 사랑하는 진돗개 석구를 그리며...

작품평 진돗개 석구를 교통사고로 잃은 것이 어언 25년 전 일이건만 생생히 기억하고 있군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반려견 석구와의 사연을 듣고 저도 가슴이 찢릿찌릿 아팠습니다. 제가 키우는 요크셔테리어가 노견이라 입원과 퇴원을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석구와 가을 하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남은 나날 잘 보내기 바랍니다.



가을 하늘이 비치면

이경로

가을은 울 밑의 봉선화가 한창인 늦여름 속에 숨어 우리 몰래 찾아온다. 다만 늦더위의 기승 때문에 미처 알아채지 못할 뿐인데, 그렇게 슬며시 우리 곁으로 가을이 다가오면 우선 먼저 하늘이 한층 높아지며 세상을 두르고 있는 색깔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고추잠자리의 날갯짓이 바빠질수록 하늘은 한없이 높아지며 청초한 투명함으로 가득해지고, 봉숭아 물을 열게 머금고 있던 세상은 가을빛이 완연해질수록 요란한 몸치장으로 부산을 떨며 야단스러워진다.

그러한 계절적 현상은 단풍으로 유명한 노령 산줄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늦여름과 몸을 부비며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 정읍 내장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에 못미처 있는 김제 모악산도 한껏 높아진 하늘과 한 배경을 이루며 울긋불긋하게 물들 채비를 서둘러 마쳐 간다. 사실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산은 우리나라 가을 풍경 중 단연 최고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데, 하긴 내장산의 가을 단풍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빼어난 게 사실이다. 물론 내장산과 인접해 있는 김제 모악산도 그 붉은 정취가 이어진 지리적 영향 때문에 가을 풍경이 꽤 뛰어난 편인데, 그래서인지 높다란 가을 하늘이 비치고 단풍이 물드는 이맘때가 되면 고향이 절로 그리워지며 오래전 기억까지 덩달아 떠오른다.

아주 오래전 어느 가을이었다. 40년도 더된 만큼 이젠 하도 오래되어 기억마저 희미해진 중학교 다닐 때의 일인데, 그때도 요즘처럼 세상이 온통 가을빛으로 붉게 타오를 때였다. 어느새가 한껏 높아진 하늘 아래로 ○○산 자락 전역이 온통 울긋불긋해지더니 그 근방이 금세 발갱게 물이 들었다. 그렇게 가을빛 가득했던 어느 날 오후,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산 자락에서 내려앉은 작은 산모퉁이를 돌아 들녘으로 이어진 샛길로 막

접어들자, 길 양쪽 제멋대로 군락을 이룬 코스모스와 그사이를 비집고 나온 억새풀이 이리저리 하늘거리며 먼저 반겼다. 좁은 농로를 따라 저 멀리까지 들성들성 피어난 키 작은 코스모스와 긴 꽃대에 하얀 꽃을 매단 억새풀이 그 사이사이를 용케 비집고 나와 하룻길 발걸음을 절로 멈추게 했는데, 하지만 뜻밖의 그 만남은 반가움을 만끽하기도 전에 잠시 잠깐으로 끝나야 했다.

황금빛으로 넘쳐나는 시야에 생각지도 못한 피사체가 뜬금없이 잡혔기 때문인데, 다름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산 그림자가 살짝 드리운 곳에 황금빛 가득한 너בות 들판이 있었고, 그 너부죽한 들판 한곳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다. 그렇게 저절로 눈에 띈 아버지는 등이 바짝 굽어 새우등진 모습이었고, 어머니는 하늘거리는 하얀 수숫대마냥 가녀린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숙여질 대로 숙여진 허리를 이끌고 논배미 이곳저곳을 오가며 가을걷이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그 광경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빛바랜 밀짚모자와 어머니의 해진 머릿수건이었는데, 아버지의 밀짚모자는 위아래로 쉴 새 없이 오르내리고 있었고, 어머니의 머릿수건은 새까만 때꼽이 잔뜩 끼어 있었다. 지금이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한 가슴 먹먹한 그런 장면인데, 검은 교복에 까까머리 시절이었던 그 당시엔 그렇지가 않았다. 그 어떤 핑계나 변명도 될 수 없지만, 삶의 무게로 잔뜩 짓눌려진 아버지의 그 고단함과 귀밑머리부터 이미 희끗해진 어머니의 그 늙직함을 그때는 솔직히 헤아리지 못했다.

요즘처럼 가을만 되면 철없던 그 시절이 자꾸 떠오르며 심란케 하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렇게 먼 훗날, 그때가 떠오르며 애끓는 그리움에 사무치게 될 줄은…….

그저 후회스럽고 한스러움에 조용히 혼자 읊조려 본다.

가을, 이맘때만 되면

작품평

중학교 시절의 일, 즉 40년도 더 된 옛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 집에 가던 어느 날, ○○산 산자락에서 일하고 있던 농사꾼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등이 굽어 새우 등이 되어 있는 아버지와 하늘거리는 수숫대 마냥 가녀린 어머니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 수필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빛바랜 밀짚모자와 어머니의 해진 머릿수건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대의 마음은 효자입니다. 출소하면 바로 두 분 묘소로 달려가겠군요.

“테마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덤



소군호

“할머니! 그렇게 팔아서 뭐가 남아요. 덤으로 안 주셔도 돼요.”

거스름돈에서 천 원을 더 주려 하면 그럴 거면 다신 오지 말라며 도리어 화를 내곤 한다.

“알았어요. 그럼 천 원어치 더 살 거니 그만큼 더 주세요. 그럼 됐죠?”

“그럼... 뭐 아무튼, 다음부터는 먹을 만치만 사고 다신 그러지 마쇼!”

우리 동네 오래된 전통시장 꼬트머리 한 구석진 곳에 자리를 펼쳐놓고 채소를 파는 한 할머니가 계신다. 오고 가는 길에 가끔 상추나 나물을 살라치면 어김없이 덤으로 한 움큼 얹어주곤 한다. 시장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이 할머니는 근성은 물론 신조가 있는 분이다.

한창 젊었을 때는 그 어떤 남자들한테도 주눅 들지 않았을 여장부였을 것이다. 곱게 늙진 않으셨지만 늘 당당한 할머니가 내 눈엔 멋져 보였다. 하기사 그런 배짱 없이 치열한 시장바닥에서 어찌 살아남았겠는가. 이 할머니 기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폼등이처럼 굽은 허리와 수세미처럼 거칠어진 손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나이가 여든은 족히 넘어 보이는 데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악착같이 장사하러 나오시는 걸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무슨 사연이 있길래 노년을 저렇게까지 사시나 짝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매번 아내의 명을 받고 장을 보러 갈 때면 대형마트에서 가서 신선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볼까 하다가도 그 할머니가 눈에 밟혀 일부러 전통시장을 들르곤 했다.

어느 날 한번은 매번 텀을 주시길래 고맙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여 시원한 과일주스 한잔을 들고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할머니가 보이질 않았다. 순간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옆에서 장사하는 아저씨한테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몸살 기운이 있어 집에 들어가셨다고 한다. 아프면 집에서 쉬실 일이지 왜 나오셨을까. 가족이 있는지를 물어보니 지병을 앓던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외지에서 살고 있어서 혼자 사신다고 했다.

오고 가며 할머니와 그간 정이 들었는지 짝한 마음이 밀려왔다. 몸 아플 때 곁에서 챙겨줄 사람 없을 때가 가장 서럽다던데... 나이 들어 아프면 회복도 잘 안 될 텐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었다.

말년에 혼자 사는 외로움은 어떤 느낌일까? 어쩌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부지런히 장사하러 나오시는 건 아닐까 싶었다. 아마 상인들과 수다 떨며, 또 분주하게 지나가는 행인들의 천태만상을 보는 재미에 적적함을 달랠 것이다.

야채를 다듬고 흙을 털어내면서 혼자라는 외로움도, 자식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다듬고 털어냈을 것이다. 언젠가 할머니가 있던 자리에 낯선 누군가가 대신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상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칠 것이다.

그렇게 누군가 떠나면 누군가 또 그 빈자리를 채우고 할 것이다. 산다는 게 뭔지 인생무상함이 느껴졌다. 할머니가 주셨던 텀은 어쩌면 내가 텀으로 사는 인생임을 일깨워 주는 무언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

사실 살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왔다. 만삭을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나는 어머니 복중에서 세상의 빛을 못 보고 사산될 수 있었고, 어릴 적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동네 형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며, 꿈많은 사춘기 시절 각혈을 할 만큼 결핵을 심하게 앓으며 사선을 넘나들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출근길에 대형 화물트럭과의 충돌로 타고 있던 차가 폐차 처리될

만큼 큰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했다.

죽어도 벌써 죽어 이 세상에 없었을 나였다. 지금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를 내가 텀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망각하고, 조금 더 내 것으로 취하려고 아등바등 욕심부리며 살아왔다.

나 잘난 맛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옹졸하기만 했던 거 같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텀없는 인생, 나의 수한을 넘어 텀으로 사는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부질없는 욕심을 더는 부리지 말고 살자고 다짐해 보았다.

나의 발걸음이 매번 전통시장 할머니를 무심코 향했던 이유는 이런 인생의 텀의 의미를 일깨워 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작품평 : 전통시장 구석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주셨던 텀을 소재로 쓴 따뜻한 글입니다. 할머니의 훈훈한 정을 통해 나아말로 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교훈적인 글입니다. 누군가 떠나면 또 누군가 그 빈자리를 채워준다는 믿음으로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작가의 삶의 태도가 돋보이는 우수작입니다.

은행나무와 어머니



박종석

우리 소내 운동장 한켠에는 은행나무 몇 그루가 즐지어 서 있다. 곁에 돌아나
 흑독한 여름과 비바람을 이겨낸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빛깔이 비단결처럼 곱다. 그 고운 빛깔을
 가을바람조차 시샘하듯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은행나무를 흔들어 우수수 잎을 떨군다. 오늘따라
 바람이 밍다. 은행나무는 봄부터 자식처럼 붙들고 있던 잎을 어찌면 저리도 편안히 바람에 내어
 줄 수 있을까. 아니 잎을 내어주면서도 싫은 표정 짓지 않는 자태가 아름답다. 나에게도 은행나무
 같은 인연이 있다. 언제나 제자리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어리석은 나에게 끊임없이
 내어주고 있는 인연이다.

지나온 내 삶에 지혜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돌이켜 가슴에 손을 얹고 천번만번 생각해
 보았으나 오직 어리석음 뿐이다. 옳은 정신은 늘 몸 밖에 빼놓고 헛된 욕망에 매달려 살다 끝내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길 없는 중죄인이 되었다. 내 나이 마흔살이 넘어서였다.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동의 죄값은 태산(泰山) 보다 무겁다. 사회에서 격리된 나는,
 밤낮으로 저승사자처럼 딱하니 버티고 서있는 십오척 높이의 담안 생활에 쉽사리 적응이 안됐다.
 태어나 처음 마주한 담안 사람들은 이름모를 외계행성에 온 듯했다. 그들의 대화 또한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속닥였다. 이런 선입견에 날이 더하면 더할수록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왔다. 나는 하루에도 수백 번도 더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으리라. 결국,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몸과 마음을 가둔 십오척 담보다 더 견고한 담을 마음 안에 쌓아
 나갔다. 그렇게 거실에서나 공장에서 눈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생활하니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다. 늘 우울하고 외톨이었다. 그래 맞다.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다 끝내는 하루하루 1분 1초 살아 숨 쉬는 목숨조차 무겁게 느껴만 졌다. 결국,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고 있는 고통의 굴레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지만 돌파구를 찾을 길 없었다. 살고자 발버둥 치면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는가. 내 나이 마흔 살이 넘어설 때까지 단 한번 상상조차 못했던 단 1%도 일어날 수 없을 일이 생겼다. “미안하다. 모두 내 잘못이다. 집 걱정 자식걱정 말고 너나 잘 있다 와라...” 칠순을 넘긴 어머니께서 뜻밖에 보내온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또 몸 밖에 빼놓고 살아온 옳은 정신이 몸 안으로 들어왔는지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무학력이었으니 당연히 글씨는 쓸 줄 모르셨다. 그건 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으로 글을 배웠는지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글씨의 받침이 제각각 제자리를 못 찾은 채 겨우겨우 만들어 쓴 꼬부랑 글을 읽으며 불효자식은 올 수도 없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기 전 내 삶 안에는 어머니란 존재가 간절히 각인되어 있지 않았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곁에 계셨다. 내가 배고프지 않게 때마다 끼니를 꼭 챙겨주시던, 언제든 손을 불쑥 내밀면 용돈을 꼭 쥐어주시던, 내가 아프기라도 할 때면 이마에 손 얹어 열을 대고 약을 사 와 낮게 해주시던 분이셨다. 그렇다 하여 그때마다 고마움을 느껴서 내 마음 따뜻하게 단 한번 표현 해본 적이 없다. 그러기는커녕 짜증내고 미워했으며 싫은 것에는 화를 내기까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나였는데, 이토록 내 삶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셔야 알게 된다. ‘나에게도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마음속에 어머니의 존재가 새롭게 각인되고 있다.

그런 일이 지난 뒤, 내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들었다. 피폐되었던 이성이 회복되는지 정신머리가 점차 수습되었다. 눈이 새롭게 떠지고, 귀도 뚫리고, 말문도 열렸다. 그러더니 내가 먼저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동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소통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 활력도 돌아나 공장작업에까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작업을 열심히 하는 만큼 장려금도 자꾸만 모아졌다. 어머니는 내 어린 두 아들을 보살펴 주고 계셨다. 말씀은 안하시지만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 자명한 일이다.

나는 곰곰이 생각 끝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작은 마음’을 냈다. 매달 조금씩 모아둔 작업 장려금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보내드렸다. 그때 처음 마음을 냈던 일이 십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일년에 두차례씩 이어지고 있고, 불행 중 다행일까 두 아들도 큰 탈 없이 잘 성장하여 자신의 자리를 찾아 성실히 살아간다. 코로나19 이전에 가족만남 행사를

가졌다. 내가 말 한마디 안했는데 두부부침, 호박꼬지 볶음, 시래기나물... 어릴적 자주 먹던 음식이 상위에 가득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을 본 순간 울컥했다. 눈으로 흘러내리지 못한 뜨거운 눈물이 목구멍 너머로 자꾸만 삼켜졌다. 가족만남을 마치고 내가 돌아가려고 일어섰을 때 어머니께서 와락 나를 끌어안고는 "이놈아 너를 여기다 두고 못 간다. 너하고 여기서 함께 살아야겠다 이놈아..." 목 놓아 우셨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내 나이도 예순 살을 넘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어머니 속 까맣게 타도록 썩이고 있는 불효자식이다. 이런 못난 자식을 아직도 내치지 않으시고 어머니 마음 안에는 여전히 '어린 자식'으로 불리고 계신 것 같았으니 말이다. 나를 끌어안은 어머니의 붉은 백지장처럼 가벼웠다. 봄부터 자식같이 불되고 있던 잎을 가을바람에 모두 내어준 채 빈 가지만 불되고 점점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에 맞서 떨어 운동장에 서 있는 은행나무와도 같게 느껴졌다.

오늘도 나는, 어머니 모습같이 운동장에 서 있는 은행나무를 바라본다. 이제 더 이상 은행잎은 한 잎도 매달려 있지 않다. 울퉁불퉁 골이 깊이 패인 은행나무 껍질은 어느덧 여든 여섯된 등 굽은 어머니의 주름살 깊은 손등 같고 얼굴 같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열다섯이던 어느 여름날 며칠 동안 가출했을 때, 내가 남들보다 일찍 군에 갔을 때, 내 어린 두 아들을 밤낮으로 보살피 주실 때에 속도 많이 썩으시고 많이 울기도 하셨으리라. 그런데도 어리석은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못살겠다고 이제껏 말씀 한번 안 하셨다.

이토록 천분의 만분의 일도 어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나는, 십오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편지를 또 받는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아낌없이 은행잎을 모두 내어 주리라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예순세 살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그 사랑 받아먹으며 바늘 구멍만한 희망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다.



작품평 : 혹독한 겨울, 은행잎을 모두 내어주는 은행나무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63세의 아들이 86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먹으며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그동안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모성애가 인간의 근원임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작품입니다.



베품과 나눔



최봉관

예전에 살이 쪼을 때 입던 옷이 너무 커 옆집아저씨께 드리러 갔다. 아저씨는 옷이 새것 같네 하며 무지 좋아 하셨다. 그러면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하셨는데 난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주시면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돌아와서는 이웃 저웃 입어보고 안 맞는 옷이 또 있길래 이리저리 훑어보아도 유행이 완전 지나서 괜히 들고 갔다가 눈치 보는 것 아닐까? 하며 혼잣말 하다 그래도 혹시 알아? 라며 다시 옆집 아저씨를 찾아갔다. 옷도 드릴 겸 또 차 한 잔 생각도 나고, 옆집아저씨는 나를 기다린 듯 친근하게 반겨주시면서 1만원짜리 지폐가 2장 들어 있더라며 나에게 건네 주시길래 앗싸 풍돈~ 이라며 엉겁결에 받아들고 차도 한잔하고 돌아와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옷에 돈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 크리닝해서 넣어둔 옷인데 돈이 들어 있다면 세탁소 사장님께서 먼저 아시고 돌려줬을 거라며 머릿속에서 2만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결국은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 함께 밥을 먹다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옷 팔았다며~” 하고 말하며 웃길래. 무슨 옷? 그러자 옆집세탁소 아저씨께서 옷을 받았는데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공짜로 받기가 좀 그래서 2만원 옷에서 나온 거라며 당신한테 줬다고 그제서야 2만원의 행방과 출처를 알게 되었다.

다음날 나는 작은 슈퍼에 가서 박카스 한 박스를 구입하였다. 물론 옆집세탁소 사장님께

드리려고 구입한 거다. 작은 나눔 나에겐 쓸모가 없는 것도 누군가의 손길에 닿으면 재탄생이 가능하다고 고마움의 답례로 뭐라도 사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박카스 광고를 보고 결정하고, 빨리 고마움의 답례라도 빨리 해야겠다 하는 생각뿐이었다. 박카스 상자 들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박카스 광고가 떠올라 코웃음 지으며 걸음을 재촉하였다. 세탁소에 들어서자 사장님께서는 항상 그냥 안돌려 보내시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분이였다.

탁자 위에 박카스 상자를 올리며 “사장님 이거 드시면서 일하세요.” 라며 말씀드렸는데 박카스가 큰 상자라며 한통은(12개) 들고 가서 먹으라는 말씀에 들고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 사소한 나눔이 배가 되어 돌아오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그 말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기쁨은 배가되어 돌아와서 나 역시 사소한 것도 베풀기로 시작하겠다며 다짐했다.



작품평 :세탁소 사장님의 베풀과 나눔의 인생관이 귀감이 되는 글입니다. 나에게 쓸모없는 것도 누군가의 손길이 닿으면 재탄생 된다는 사실, 고마움의 답례로 박카스 1통을 건네주는 너그러운 분, 사소한 사랑의 나눔은 배가 되어 돌아오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원리를 실제 보여줍니다. 생활 철학이 담긴 우수작입니다.



어머니가 내어주신 보리차



한동호

내 나이 어느덧 마흔살이 되었고, 어려웠던 가정형편으로 힘들게 보냈던 나의 유년기를 떠올려 본다. 아마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1990년대. 1997년 98년으로 기억한다. 어린시절 경제위기 IMF 그때는 나도 어린 나이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때 나는 중학생 시절이었고 생활고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은 IMF 덕에 직장을 다니시던 아버지도 직장을 잃으시고 가족들 생계 때문에 급하게 나가셨던 일용직도 부상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셨다. 그러면서 옆친데, 옆친격으로 생활은 더 힘들어졌고 우리가족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둘에 막내였던 나까지 가족 모두가 아주 작은 단칸방으로 월세를 주며 이사를 가야만 했다.

이사를 가서 나이가 찬 누나 둘을 포함한 우리 가족은 6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아주 비좁은 단칸방에 모두 의지하기에는 턱없이 비좁았고, 어쩔 수 없이 누나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는 일을 하는 기숙사가 딸린 방직공장 학교로 떠나버렸고, 부상으로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도 조금 회복하시면서 일을 찾아 나가시고, 어머니도 하루하루 일터로 나가셨다. 그렇게 나는 할머니와 둘만 집에 남게 되었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보니 우리 가족들은 뿔뿔히 흩어져 이산가족이 되어버렸고, 집에는 할머니와 나만 둘이 남게 되었다.

시간이 점차 흘러 일하러 나가셨던 부모님, 방직공장 학교를 간 누나들... 모두 연락이 두절 되었다. 그로 인해 나는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맞게 되었고, 그 어디에도 기쁨도 희망도

한가닥 빛도 볼 수가 없었다. 내게 남은 가족은 나이가 연로하신 우리 할머니가 유일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고민이나 내 심경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은 없었고, 곁에 계신 할머니에게만 철없이 투정을 부리곤 했다.

나에게 남은 건, 언젠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딱, 한가지 희망만 가지고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일은 닥치는 대로 하자 생각했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신문배달, 우유배달, 주유소 등 돈만 벌 수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은 전부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한달 급여로 3만원 남짓한, 작은돈을 벌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도 성장해 가면서 3만원 정도 벌던 나의 급여는 10배나 올라서 30만원이나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고, 사랑하고 보고싶은 아빠, 엄마, 누나들, 할머니 우리 가족 모두가 다같이 한집에서 살날이 머지 않았다는 기쁨과 희망은 나의 급여에 비례하듯 기대치가 높아졌고, 매일 행복한 우리 가족을 꿈꾸게 되었다.

항상 우리 할머니께선 나에게 모든 것을 모자라지 않게 챙겨주시고 채워 주시며 돌봐 주셨지만, 늘 내마음 한편에는 허전한 빈자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자리는 아마도 아빠, 엄마의 공백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족들과 같이 살날만을 고대하며, 행복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던 삶들은 이제는 그 어떤 기대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나는 어느덧, 고등학교를 진학할 나이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는 할머니만이 계셨고, 할머니가 큰 힘이 되어주셨지만, 나는 이제 가족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기약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뿜을 맡기게 되었다. 이제, 할머니께서도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기력도 없으시고 점점 약해져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내 가족 마저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과 공포속에 하루하루가 지옥같았고 힘들었지만, 다른 길은 없었다. 지금 내곁에 계신 할머니 건강이라도 내가 열심히 챙겨서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내 나를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고 다시 작은 기쁨도 찾아오고 삶의 희망도 생기게 되어, 할머니께 효도하고 잘 살라하면서 소박한 꿈도 만들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리기만 했던 나는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잘다니며 생활하기 시작했고, 이미 그때는 할머니가 나의 전부가 되어 버렸다. 행복했다. 사랑하는 할머니와 살면서 딱히 모자란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이 이것으로도 행복하기만 했다. 하지만, 늘 내마음 한구석에는 아با와 엄마의 자리가 지워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나 보다. 한번씩, 가끔 내 자신을 걸잡을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곤 하였고 그 아픔을 견디는 방법도 알지 못한 나는 방구석 한켠에서 쓸쓸히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점점 무더진 그 생활에 그저 그렇기만한 시간만을 보내던날... 집으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실, 전화기마저도 그저 시끄럽기만한 기계였다. 빗 독축을 하는 전화만 오던 관심 밖이던 기계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유독 연속으로 벨이 울리기 시작한 전화기에 시선이 쏠렸다. 늘 똑같이 아무런 감정없이 수화기를 들었고 아주 나지막하고 떨림이 느껴지는 낮익은 목소리로 “아들아 엄마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무런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고, 정적이 흐르다 나는 흐느끼면서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냈다.

그렇게 몇분이나 지났을까 나는 감정을 추스르고 몇 년만에 걸려온 엄마의 전화에 어린아이처럼 쉬지않고 원망만 쏟아냈다. 왜, 나를 버리고 찾지도 않았냐고, 나는 단 한시도 아با, 엄마를 잊은적이 없었다며, 그 긴 시간 세월동안 쪽 기다리고 있었다며... 엄마도 나처럼 눈물만 흘리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화 후 엄마와 나는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다음날 곧장 엄마가 알려준 곳으로 버스에 몸을 싣고 달려갔다. 두어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서 몇걸음을 터벅터벅 걸었을까. 나를 마중 나온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고, 아무런 말도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서서 여지껏 매말라 있던 내 눈물샘은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렇게 아무런 대화가 없었지만 몇 년동안의 원망이나 아픔은 눈물에 싹 찢겨 내려가 버린 것인지, 속이 땡 뜯린 것처럼 후련했고, 엄마에게는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파했는 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투정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가 꺼낸 첫마디는 수백수천번을 연락도 하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아들이 아파할 것을 알았기에 쉽사리 그렇게 하질 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루빨리 우리 아들 만나기 위해 밤낮없이 일만 하면서 한푼이라도 아끼면서 돈벌러 나가셨다고, 엄마의 그 말에 다른 질문도 더하지 못했다.

곧장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집으로 가게 되었고, 도착해서 들어가는 순간 그 방을 바라보면서

나는 또 눈시울이 붉어졌다. 혼자 몸하나 겨우 뉘울 수 있는 작디작은 방 한켠에 추운 겨울에 난방이라고는 연탄 몇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전부였다. 엄마는 아니 어머니는 방석을 하나 내어 주시면서 방이 차다며, 본인은 차디찬 방바닥에 그냥 앉으시고, 나에게는 방석에 앉으라며 깔아주셨다. 곧이어, 나에게는 아주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어주시고, 본인은 그냥 맹물 한 잔을 들고 오셨다.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가 드시던 그 물은 그냥 생수인가 할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마시던 물은 수돗물을 끓여서 식혀 마시던 맹물이었고, 나에게 내어주신 따뜻한 보리차는... 어머니 본인은 돈 한 푼이 아까워 드시지 않으시고 자식을 하루빨리 만나기 위해, 이 작은 보리차 한 잔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본인은 수돗물을 끓여 맹물만 드셨고, 그때 그 시간 아끼면서 생활하시고, 아들인 나에게는 보리차 한 잔을 따뜻하게 끓여 내어 주셨던 것이었다.

그때는 다 알지는 못했지만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곁에 없었던 시간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위해 힘껏 달려오고 계셨다는 것을...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나들도 할머니와 나도 이산가족처럼 뿔뿔히 흩어져 있었지만 바라보는 곳은, 목표 종착지는 다 같은 곳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고, 나는 지금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본다.

이 시간 나는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게 된 것은, 성인이 된 지금 나는 잠시나마 미숙한 생각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현재 수용생활을 하게 되었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대의 어머니가 내어주시던 보리차 한잔을 떠올리며 이 시간을 견디고 힘을 내어본다. 지금은 나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고 8살 한 아이의 아빠이다. 지금은 비록 가족 곁을 떠나있지만, 앞으로는 나도 따뜻한 보리차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의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가정이 꼭 될 것이다. 분명,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작품평 :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이 흩어져서 어렵게 생활했지만 늘 기다리며 그리워했던 세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아픔이었지요. 그러나 가족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모습, 어머니가 내어주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은 모든 아픔을 녹여주는 진실한 사랑이었지요. 그 사랑을 떠올리며 견디고 힘을 내는 아름다운 글입니다. 보리차 한 잔에서 사랑을 찾아낸 훌륭한 작품입니다.

참, 참, 참

김유리

“어떤 예식이든 다 가능한가요?”

뜨거운 태양에 머리카락조차 녹아내릴 것 같던 8월 어느 날, 신입사원으로서 패기 넘치게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내가 만든 설문 조사지를 돌리던 중 한 테이블에서 내가 드린 설문지를 들어보이며 물어보았다.

“네! 저희 회사는 웨딩 이벤트 예식을 전문으로 하기에 고객님의 원하시는 예식을 직접 만들고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자 그 남성분은 정식 상담을 하고 싶다시면서 명함을 건네주시었고 나는 신이 나서 회사에 정식 상담 일정을 보고 드리고 다음날 내 첫 고객을 위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 자료들을 추려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객님을 만나러갔다.

성함은 정○○. 나이는 37세. 신부님 나이는 33세, 4살 차이는 궁합도 안보는 천생연분이라던데 생각하며 신부님은 언제 오시는지 여쭙니 본인만 와서 상담하고 괜찮으면 계약을 하시겠다셔서 흔쾌히 받아들였다.

첫 고객이었다. 내가 스스로 발로 뛰어 직접 만든 설문지를 가지고 나를 어필함과 다름없는

노력이었다. 그럼에 더욱 고조되어있던 기분이 신랑님의 말 한마디에 개구리 뒷다리 (성악가들이 주로 연습하는 최상의 웃는 표정)를 짓고 있던 내 표정은 정말로 개구리마냥 눈만 꿈벅꿈벅 거리게되었다.

예비신부님의 이름은 김○○. 시각장애인이다. 후천적으로 갑작스레 생긴거여서 치료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너무나 당황했으나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생각에 최대한 티내지 않고 개구리뒷다리 미소를 지으며 어떤 식으로 진행해드릴지 물어보니 “그냥 ○○이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늘 저에게 미안해하기만 해서요. 그래도 기억에 남을 평생의 행복한 날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진심으로 예비 신부님을 생각하는 모습에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부터가 문제였다. 프로포즈까지 진행해야하고 일반적인 결혼식도 경험없는 마당에 시각장애인 예식이라니. 회사에 연락해 물어보았으나 아직까지 시각장애인 예식은 접수받은 적이 없었고 내가 처음이라며 이번 기회로 시도해보고 첫 사례를 만들어내라셨다. 보이지 않는데 행복을 느끼는 게 가능한건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머리가 멍해졌지만 첫 건수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성공해내리라 굳게 마음먹고 되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이메일을 받고 신랑님께서 보낸 첨부파일들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듯한 기분으로 긴장하며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하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고일 정도로 가슴이 저릿해짐을 느꼈다. 누가 봐도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신랑님과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수많은 사진들과 동영상들. 그리고 신부님을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시는 신랑님의 표정을 읽고 일을 떠나서 정말 행복한 예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단 생각이 들었고 며칠 내내 고민하며 생각한 결과 보이지 않으면 들으면 되지 않을까 하며 나만의 동화예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릴 적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면 꿈과 희망을 주는 만화영화를 보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었기에 아직 나 또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동화를 실현시키겠다는 생각에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부푼 채 틀을 짜기 시작했다, 모든 예식순서의 음악은 디즈니음악으로만 구성하였고 프로포즈는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신부님이 좋아하시는 분홍색에 흰색과 번갈아서 헬륨풍선을 만들어서 천장에 가득 띄우고, 한쪽 거실 벽에 빔을 쏘는 방식으로 두 사람의 행복만 담긴 동영상을 틀고 마지막에는 신랑님과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의 음성영상 메시지를 넣어 모두의 축하를 받는단 느낌이 들 수 있게 만들었다.



프로포즈 당일, 평소처럼 집에 들어온 신부님은 발이 밟히는 장미 꽃잎을 느끼고는 처음엔 흠칫 놀라셨다가 이내 뒤이어 나오는 라이온킹의 하쿠나마타를 들으며 한발짝 한발짝씩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고 신랑님이 중간에 손을 잡아 쥐며 신부님을 부르시면서 소파에 살포시 앉히시고 음악이 끝나고 준비된 영상이 나오면서 그간 두 사람의 시시콜콜한 애정과 장난기가득 묻은 목소리, 대화를 들으시다가 가족과 지인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신랑님 목소리로 메시지를 듣고 난 뒤 영상이 멈추고 “나랑 결혼해줘 ○○아” 라며 무릎 꿇고 반지를 건네주며 청혼하는 신랑님을 마주보고 앉은 신부님은 표정은 너무나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면 연신 평평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서 얼마 후 내가 심혈을 기울인 디즈니 동화예식이 진행되었고, 신부 입장 때 미녀와야수 OST, 신랑 입장 때 라이온킹 OST, 부모님께 인사 때 알라딘 OST로, 모든 예식 순서 하나하나에 신부님의 순수함을 조금이나마 보일 수 있게 직접 듣고 행복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진심을 다해 진행하였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예식을 마칠 수 있었다.

축가 진행 직전, 잠시 짧게 튜 프로포즈 영상을 함께 보던 하객분들과 양가 부모님도 연신 웃으며 우시는 모습에 나 또한 가슴속이 울컥하며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으며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는 애지옥기생 이라는 한자성어가 문득 떠올랐다.

최근 몇 달간 베스트셀러였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에 ‘참깨라면, 참이슬, 참치김밥’의 줄임말로 ‘참참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게 또한 소중한 이가 ‘참참참’이면 ‘참모습, 참마음, 참사랑’이 더 어울리지 않냐고 했던 말이 이 부부를 생각하니 문득 떠올랐다. 참모습 참마음 참사랑이라, 그 어느 말보다도 잘 어울리는 이들만의 언어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부터 세상을 볼 수 없었다면 모를까 해가 뜨면 아침이고 달이 뜨면 밤이라는 걸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두 눈으로 두 번다시 볼 수 없게 되었는데도 저렇게 서로가 한결같이 맞춰주고 배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에 감격이 아닌 경외감을 느낄 정도였다.

1년 3개월째,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다 한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책임을 지고 내 잘못된 판단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동시에 부끄러움까지 느끼었다. 쥐구멍 어딴지 아직 내 타이머는 멈추려면 지금껏 지낸 시간 정도가 남아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 기다림을 너무 슬퍼하지 않으려 한다. 기다려야 할 때를 만난 것뿐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것이다. 앞날에 없는 삶이란 없다. 누구에게나 가야 할 길이 있게 마련인 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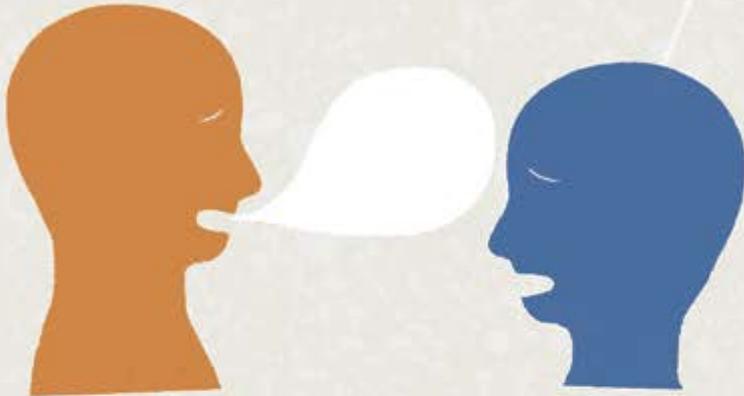
보이지 않는다고 눈 감아 버리는 게 아닌 다시 들추고 찾아내고 바라보는 눈을, 마음의 눈을 키워서 나의 타이머가 멈추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밝은 시야로 세상에 나가고 싶다.



작품평 : 웨딩 이벤트 예식전문업체에 취업하여 첫 고객으로 시각장애인의 결혼식을 맡게 된 사례를 리얼하게 쓴 글입니다. 소재가 독특하고 글의 구성도 탄탄합니다. 참모습, 참마음, 참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도 우수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눈 감아 버리지 말고 마음의 눈을 키워야 한다는 주제도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



박충의

단순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은 꼭 물 같고, 불같고, 공기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죠.

물과 불과 공기가

적당하면 삶이 행복해지겠지만

부족하면 삶이 궁핍해져 죽어가고

과다하면 삶에 재앙이 오고 말겠죠.

말이 적당하면 친구가 많아지고

부족하면 친구가 멀어지고

과다하면 다툼이 끊이지 않겠죠.

진주는 영롱한 빛을 만들기 위해

많은 상처와 아픈 눈물을 통해 완성된다 합니다.

아름다운 적당한 말이 완성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겠습니까.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철창 속에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말 한마디가
새 삶의 큰 힘이 되고 긍정적 삶으로 인도하죠.



삶을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
공감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큰 빛이 되지요.

사람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유아 때는 울면서 웃으면서 표현하고
성장기 때는 때를 쓰며 반항의 몸짓으로 표현하고
어른이 되어서야 말로써 표현하게 되죠.
우리는 어느 때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나요?

좋은 말 한마디로 하루가 상쾌해지기도 하고
1년의 희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평생의 뜻대가 되기도 하죠.

불쾌한 말 한마디로 하루의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1년의 수용시간이 되기도 하고
평생의 삶이 어둠이 되기도 하죠.

현재 그 사람의 사상을 알려면
주위의 친구와 읽고 있는 책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잠깐 사용하는 신발도 옷도 음식들도 고민하며 고르듯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과 책을
정할 때도 신중을 신중을 가지고 선택합시다.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고 인생의 터전을 태우듯
작은 말씨가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인생을 결정합니다.
“삼사일언”이란 말이 있듯이
3번 생각하여 1번 말하면 실수를 줄이지 않을까요.
참을 “인”자 3번을 생각하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지요.



하루에 무수히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중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생각 없이 던진 돌(말)에 개구리 죽듯이...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며 나의 쓸데없는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았을 당신에게 미안한 용서를 구합니다.



작품명 : 말은 물, 불, 공기와 같아서 말을 적당히 하면 친구가 많고, 부족하면 친구와 멀어지고, 너무 과하면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유가 적절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연결하고 행복, 궁핍, 재앙을 가져오는 근원임을 지적하는 예리한 시각이 훌륭합니다.

알록달록 물든 꽃을 바라보며



신영철

3척 높이 교도소 담장 안 붉게 물든 꽃이 수용자의 심신과 쇠약해진 정신 건강·용기·희망을 불어넣어주며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 훈련소가 있어 귀감을 사고 있다.

○○ ○○시에 위치한 ○○직업훈련교도소(이하 직업 훈련소)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약 1,500여 명의 남녀 수용자가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출소 전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사회의 한 일원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안정된 직장문화 정착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직업 훈련소는 이용·제빵·세탁·중식·한식·미장·용접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토대로 숙련공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소는 ○○·○○·○○시를 거점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수용자가 수감돼 생활하고 있다.

필자는 현재 구내 청소원으로 일하며 수용자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위를 위해 직업 훈련생들이 슬기로운 교육을 무사히 이수할 수 있도록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봉사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라는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사랑하고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만을 위해 손뼉아 기다리고 있다. 구내 청소원으로 그동안 봉사 활동하며 보고·듣고·느낀 점에 대해 말문을 열어 서술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고 그 죄값을 받기 위해 법의 절차에 따라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들은 수감되기 전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후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굴비 세트 역어 놓듯 호송차에 몸을 맡긴 채 호송된다.

호송차에 오른 수용자는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용 생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싸여 극단적인 선택과 탈옥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바 있을 것이다.

초조한 마음으로 이곳 교정 정문을 지나 첫발을 내딛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띄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교정에 핀 꽃이다.

만개한 꽃송이가 활짝 웃고 있는 듯싶어 굳게 닫힌 수용자 마음의 문이 열려 솜사탕처럼 녹아내려 안도감을 주고 있다.

누구나 교정의 화단 곳곳에 잘 정리정돈 되어 만개한 꽃송이가 가득 차 있다면 마음에 문을 닫고 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알록달록 연분홍빛을 뽐내며 만개한 관상용 양귀비꽃을 비롯해 페리골드·페추니아·코스모스 꽃이 바람에 한들한들 손짓하며 반겨줘 얼어붙은 마음에 병 치료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법무부 교정 당국은 매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각종 직업훈련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직업훈련생 모집에 있어 청송·대구·대전 등 전국 각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응모해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직업 훈련소를 찾아온 훈련생들은 낯선 주변 환경과 수료 받는 기간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한다는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찾아 온다. 하지만 직업 훈련소를 찾아온 훈련생들은 하나같이 “친절한 교도관·깨끗한 주변 환경·만개한 꽃을 보는 순간 마음에 평온함을 느꼈다”라며 앞다투어 입을 모으고 있다.

예부터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고 세 치 혀 잘못 놀리면 패가망신한다 했다.

최근 무더위가 기승하고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태양 빛 아래에서 꽃을 식재하고 잡초 제거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던 보안과장님께서 “모두 고생을 하신다.”라며 “시원한 물을 마시고 몸 다치는 일 없도록 하고 휴식을 갖고 일을 하십시오.”라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구내 청소원들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구슬땀 방울은 보석보다 더 초롱초롱 빛이 났고 한순간 피곤함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졌다.

교도관의 휴식 공간인 ○○로 정원에 식재된 메리골드·해당화·코스모스 꽃 또한 장관을 이루고 있다.

○○로 정원에서 휴식을 갖고 있던 한 교도관에 따르면 “직원들은 물론 훈련생도 구내 청소원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있어 만개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 “꽃을 보는 순간 행복감을 느끼고 정서 교육에 큰 힘을 실어 주고 있다.”라며 격려의 말 또한 잊지 않았다.

앞서 구내 청소원들의 주 임무 역할은 구내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 수거·복도 청소·잡초 제거·꽃 심기 등 다채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품평 : 알록달록한 꽃들의 아름다움을 서경적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담장 안에 붉게 물든 꽃들이 수용자의 쇠약해진 심신에 희망을 주며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필자의 시각이 아름답습니다. 현재 구내 청소원으로 일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봉사하는 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문복희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사람 모양을 한 신비로운 약초라는 뜻으로 인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하늘이 내리고 사람이 키우다

인삼과 산삼

김상철 | 동덕여대 교수

인삼의 대표 브랜드 '고려인삼'

인삼은 대표적인 자양 건강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했을 때 인삼을 더한 음식으로 기운을 북돋곤 했지요. 삼계탕에 인삼을 넣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인삼은 두릅나뭇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약용식물로,

뿌리가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인삼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인삼은 뿌리 모양이 사람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며, 귀신같은 효험이 있다고 하여 신초(神草)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 식물 중 높은 계급에 해당하여 사람이 받든다는 의미로 인함(人衡)이라고도 하며, 해를 등지고 음지를 향해 있으므로 귀개(鬼蓋)라고도



삼(蔘) 캘리그래피

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금정옥란(金井玉蘭), 옥정(玉精), 인미(人微), 인삼(人蔘), 지정(地精), 토정(土精), 해아삼(孩兒蔘), 혈삼(血蔘), 혈삼(血蔘), 황삼(黃蔘), 아산삼(野山蔘), 별직삼(別直蔘) 등으로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삼(蔘)이라 말했을 때 이는 인삼과 산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본래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던 것이 점차 사람에게 의해 재배되면서 이런 구분이 생긴 것이지요. 이런 인삼은 상태에 따라 '수삼', '백삼', '홍삼' 등으로 불립니다. 수삼은 채취한 후 말리지 않은 생삼을 말하며, 백삼은 수삼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 잔뿌리를 다듬어 햇볕에 말린 삼을 말합니다. 홍삼은 수삼을 썰서 말린

삼으로, 붉은빛을 띠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지요. 이밖에도 태극삼은 뜨거운 물에 담가 건조한 것으로 백삼과 홍삼의 중간상태이고, 백삼을 말린 때 뿌리를 돌돌 말아 구부러 말리면 곡삼이 됩니다. 흑삼은 홍삼을 9번 썰서 말려 색깔이 검은빛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더덕은 사삼(沙蔘)이라 불리며 산삼 버금가는 대접을 받는 약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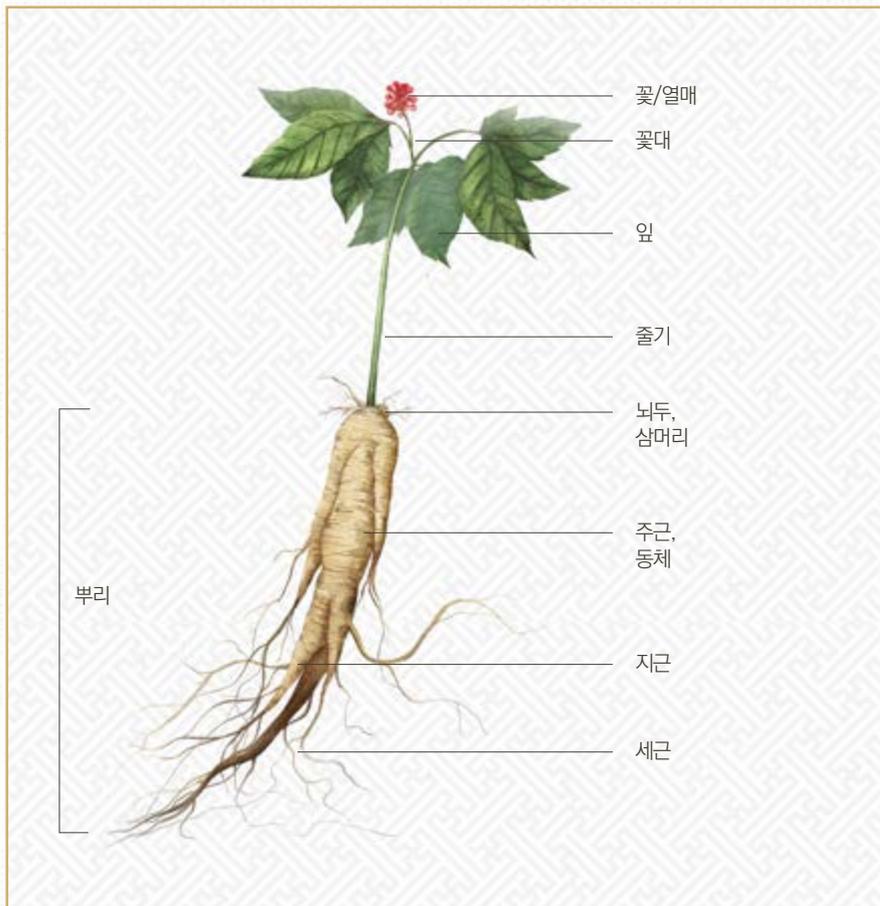
본래 인삼은 재배가 매우 까다로워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공재배, 즉 인삼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옛 문헌에 나오는 삼(蔘)들은 모두 산삼이지요. 사실 삼은 세계 여러 곳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려인삼'은 약효가 특별히 뛰어나 삼중의 삼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 삼의 명성은 이미 삼국시대에 당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질 정도였는데, 이 당시에는 고려삼, 백제삼, 신라삼(나삼)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적잖은 당나라 사신들이 신라를 찾았는데 단연 최고의 인기 품목은 바로 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사절들이 왔는데, 당시 신라의 삼이 일본 황실의 보물 창고인 정창원(正倉院)이라는 곳에 아직도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삼 하면 '고려인삼'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고려 시대에 산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어 조선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고려인삼이라 부르는데, 이는 고려인삼이라는 말이 일종의 브랜드로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인삼은 바로 우리나라 인삼을 부르는 이름이 된 것이지요. 이런 고려인삼의 명성은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천금을 주고도 못 살 정도였다고 하며, 몽골에서는 고려인삼이 바로

그 옛날 진시황제가 그토록 찾았던 불사약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고려인삼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며, '인삼을 먹고 병을 고쳤는데 인삼값을 갚지 못해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름난 영약이자 비싼 약재였지요.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고려인삼은 가짜가 판을 쳤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간 사절단들이 인삼을 몰래 가져가 큰 이득을 보았다는 기록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나오는 생산품 중에 '조선 특산품'으로서 어딜 가나 가치를 인정받은 작물이었기 때문에, 사신들이 중국에서 지참금으로 쓸 은이 부족하면 인삼을 가져가서 팔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인삼을 팔아 책 등을 사기도 한 것이지요. 19세기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 옹방강이 추사체로 유명한 조선의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에 "고려인삼을 잘 받았습시다. 베이징에서 고려인삼이라는 것은 가짜가 많으니 보낼 때 수십 부리 보내주시길"이라고 쓰여 있을 정도이니 그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작물이다 보니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바로 담배, 소금과 함께 인삼을 전매, 즉 정부가 생산과 판매를 관리하게 됩니다. 요즘은 담배 및 '정관장'이라는 이름으로

인삼 제품을 판매하는 KT&G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지요. 인삼과 유사한 것으로는 전칠삼(田七蔘)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남부인 운남성에서 나는 인삼과 유사한 약초입니다. 인삼과는 사촌이지만 고려인삼의 명성에 밀려 가짜 인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칠이라는 이름은 한번 경작을 하면 7년을 키워야 약효가 생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일본에도 죽절삼이라 하여 인삼 유사한 약재가 생산되나 약효 면에서 인삼에 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미국에서 나는 삼을 화기삼이라 하는데, 화기(花旗)는 미국의 성조기가 마치 꽃 모양 같다고



삼의 각 부위 명칭 | 꽃과 열매부터 잔 뿌리까지 모두 쓰임이 있다.



인삼*말 | 인삼의 열매를 '인삼말'이라 하며 4년 이상 된 인삼에서 채취되며 진생베리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어 판매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백두산과 유사한 위도를 가진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프랑스 탐험가들이 채취하여 소개한 것으로 인삼과 같은 종류입니다.

인삼은 다년생 식물이라 오래 묵을 수 있으며, 오래 묵을수록 약효 성분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자라는 인삼은 6년을 넘겨 살기 힘들고 7년 이상이 되면 보통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척박한 산중에서 자라는 산삼이나 산양삼은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재배 인삼보다 더 오래 살아 수십 년 묵은 산삼이라는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곤 하는 것이지요. 사는 것. 100년짜리 삼이라며 등장하곤 하는 무처럼 큰 인삼들은 대개 중국에서 농약을 써서 재배한 6년, 혹은 7년짜리 인삼입니다.

이렇게 6, 7년을 재배해야 하므로 인삼은 농작물

중에서도 땅의 기운, 즉 지력(地力)을 많이 소모하는 작물로 유명하지요. 인삼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다른 작물을 키울 수 없다는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라 합니다. 인삼은 강한 비료 성분에 매우 약할 뿐 아니라 양분의 소모량도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한 밭에서는 인삼이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6년 동안은 비료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력 소모'라는 오해는 인삼이 지닌 강력한 약용효과에서 비롯된 과장된 말이지요. 그런데도 인삼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해를 걸러 다시 농사를 짓곤 하는데, 이는 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경작에 따른 "인삼 부리썩음병"이라는 질병 탓이 큼니다. 이 병균은 숙주인 인삼이 없어도 10년가량은 땅속에서 버티기 때문에 아예 버린 땅 취급을 하고, 대신 땅콩이나 벼농사 등을 지으면서 돌려짓기하는



인삼의 대량재배가 시작된 19세기 인삼밭 풍경. 요즘 인삼밭과 유사하다.



적당한 습도와 그늘, 그리고 통풍과 배수 등 인삼의 재배 환경은 매우 까다롭다. 햇빛을 가리는 차양막이 늘어선 것이 인삼 밭의 특징이다.

것이지요. 인삼은 대부분 부리를 사용하고 열매는 그동안 중요용으로만 사용할 뿐 쓸모가 없다고 여겨 버렸는데, 인삼 열매가 알코올성 간 질환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또 잎과 줄기도 버려졌지만, 요즘에는 말려서 차로 만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의외인 것은 잎과 열매에 인삼의 대표성분인 사포닌 계열 물질의 함량이 뿌리보다 오히려 높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도라지나 더덕 등 역시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포닌이라는 말은 희랍어 sapon(사포나)에서 유래 되었는데, 비누라는 뜻이 있다고 하며,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어 쉽게 거품을 내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콩, 양파, 영지버섯, 은행, 칩 등 750여 종의 식물에도 사포닌이 들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씹싸름한 맛이 나는 식물들에는 모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사포닌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늘이 내린 영약 '산삼'

만병통치, 혹은 불로초로 대접받으며 영약의 자리에 오른 삼이기에 많은 사람이 이를 원했지요. 그래서 당연히 삼의 값은 비싸고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삼은 인공재배가 어려워 자연 상태의 삼, 즉 산삼을 채취해 사용하였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삼을 전문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바로 심마니입니다. 심은 삼(蔘)이라는 뜻이고, 메는 산(山)이며, 마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심메마니"라고도 합니다. 구분하여 경험이 적은 젊은 심마니를 소장마니라 하고 노련한 경험자를 어인마니라 구분합니다.

산삼은 북위 30~40도 근처 북반구에서 자생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학명은 *Panax ginseng* CA



인삼주는 주로 5년근을 사용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며 관절염 치료에 도움을 주고 혈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며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Cameyer이며, 그리스어로 만병통치약이란 뜻이며, 자생지는 한반도와 만주, 시베리아 및 북미 대륙 일부 지역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산삼은 모두 비슷한 종이지만 서로 다르며, 그중 으뜸은 단연 우리나라에서 난 산삼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삼을 켈 수 있는 지역으로는 모두 네 곳이 손꼽히는데 함경도 해산·갑산·풍산을 비롯한 개마고원 일대, 평안북도의 강계·자성·후창 일대, 강원도의 금강산·설악산·오대산 일대, 남부지방의 덕유산·지리산 일대입니다.

산삼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일조량과 적당한 수분을 포함한 토양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산삼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잎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생육 조건 때문에 산삼이 자랄 수 있는 장소는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산삼 자체도 군집하여 자라지 않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한 개체씩 자라납니다. 산삼이 살 수 있는 입지조건은 기본은 '경사가 완만한 산 동쪽에, 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여 자라는 곳, 유기물질이 풍부한 토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엽수, 침엽수가 섞인 숲은 침엽수만 있는 곳은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활엽수만 있는 곳은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면 햇빛을 지나치게 받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산삼은 생장을 멈추고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산삼은 6년에서 최대 24년 동안이나 휴면 상태를 유지하며 그동안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삼은 초기에는 3개의 잎으로 발아하며 4, 5년은 되어야 5개의 잎이 피어납니다. 줄기 끝이 손바닥처럼 생긴 잎이 다섯 개이고, 끝이 뾰족하며 잎 표면에 잔털이 있고 가장자리는 톱니바퀴 같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삼의 경우 같은 햇수의 삼이라 하여도 자생지별, 함량별 차이가 있으며, 오래된 삼일수록 그 성분 차이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산삼은 오래될수록 종족 번식을 위해 고유성분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자체 내에 저장하기 때문에 진한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하지요.

심마니가 산삼을 캐러 들어가는 시기는 눈이 녹기 시작하는 3월 중순부터 초겨울까지의 약 9달 동안이며 가장 좋은 때는 처서((處暑) 에서부터

입동(立冬)을 전후한 기간인데, 이때의 산삼이 가장 약효가 좋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의 입산 일은 1·3·5·7와 같이 양의 수를 고르는데 이날이 액이 없고 길하다고 여겨온 것이지요. 양수의 날이라도 그날의 일진이 호랑이 날이면 피하는데, 이는 호랑이를 산신의 화신으로 여겨서 산신이 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로초로 불릴 정도의 영약으로 비싼 값에 팔리니 전국의 산에는 삼을 찾는 이들로 넘쳐났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생육이 까다로운 산삼은 18세기

중후반 대책 없이 채취만 일삼았기 때문에 산삼이 한반도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에 대한 수요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채취량이 급감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재를 찾아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삼의 대체재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에 주목하였고, 19세기 들어서면서 인삼 경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제일 먼저 눈을 뜬 이들이 바로 개성상인들이었습니다. 인삼 재배법은 남쪽에서 먼저 개발되었으나 자본 문제로 대량 재배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인삼 수확까지는 5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계속해서 자금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지요. 19세기 조선 현실에서 이 경작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집단은 개성상인이 유일하였고, 이들은 개성 일대를 인삼 주산지로 발전시켜 개성 인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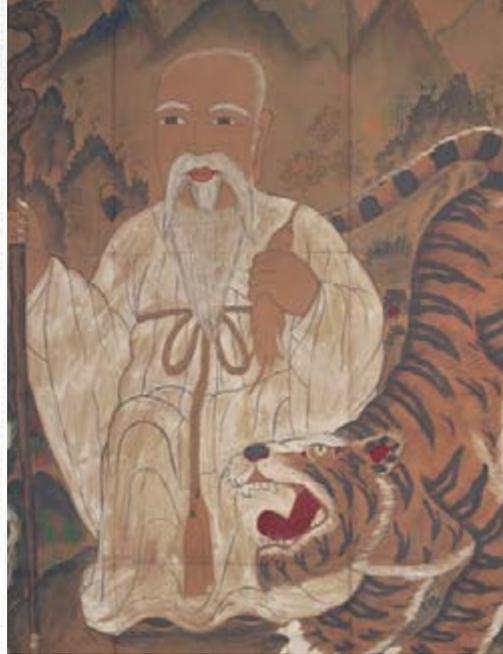
비록 인삼의 인공재배가 성공하였으나 산삼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삼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산삼의 씨를 산에다 인공적으로 뿌려 야생에서 재배하였습니다. 이를 산양삼이라고 합니다. 산양삼은 고려 시절 심마니들이 다음에도 후손들이 캐 수 있도록 산삼의 씨를 산에 뿌린 것으로, 처음 만들어질 당시는 산삼의 씨를 썼지만, 지금은 산양삼의 씨를 받아 다시 산양삼을 심습니다. 이런 산양삼은 인삼보다는 비싸고 산삼보다는 훨씬 싼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산삼은 대부분 산양삼이나 장뇌삼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산양삼은 산삼의 씨를 산에 뿌려 야생 재배를 시킨 것이며, 장뇌삼은 산삼의 씨를 밭에 뿌려 사람이 재배한 것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산양삼은 산삼에



억대를 넘는다고 소개된 산삼. 경남 함양 지리산에서 채취하였다고 한다.

가까운 것이고, 장뇌삼은 인삼에 가까운 것이지만 요즘은 모두 산양삼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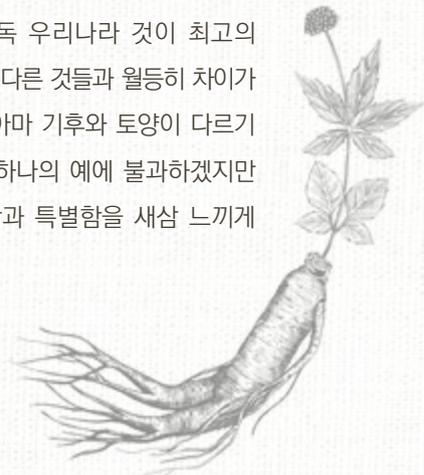
산삼은 일반적으로 천종, 지종, 인종으로 나뉩니다. 천종(天種)은 수백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인위적인 간섭 없이 자란 상태의 산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삼의 싹이 발아할 당시부터 성장의 전 과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아니하면 이를 천종으로 보지 않고, 반대로 산삼 싹의 발아가 인위적으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일정한 자연 순화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천종으로 쳐줍니다. 즉, 자연 상태로 씨가 떨어져 인공적인 개입 없이 5대를 성장한 산삼과 산양삼으로서 5대(6대)를 거듭나서 성장한 산삼을 천종이라 하는 것이지요. 지종(地種)이란 천종으로의 순화단계에 있는 자연산 1대부터 4대의 삼을 말합니다. 썩, 까치, 비둘기, 까마귀 기타 산새들이 빨갈게 물든 '인삼딸'이라 부르는 인삼의 열매를 먹고 산중에 배설함으로써 퍼진 삼을 말합니다. 지종은 다시 지종뇌(地種腦)와 산장뇌(山長腦)로 나뉘는데, 지종뇌는 인삼종이 야생에 가서 3~4대 이상 지났을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산장뇌는 야생에서 1~2대쯤 지난 산삼을 말합니다. 인종(人種)은 천종 씨앗이나 자연삼의 씨앗을 채취하여 자연의 깊은 산림 속에 자연 방임하여 키우는 경우와 인삼 씨앗을 이용하여 인가 주변에서 재배 삼포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생육시키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삼을 키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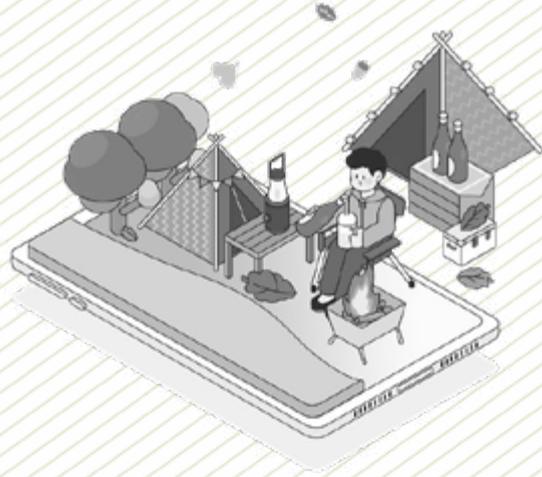
산삼은 영물로 취급되어 산신령의 점지나 허락이 있어야 캐 수 있다고 한다.

요즘 종종 오래된 산삼 발견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곤 합니다. 수십 년, 혹은 100년을 넘어 역대를 호가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나, 이는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대 이후, 특히 한국 전쟁 등을 겪으면서 산림이 피해를져 산삼이 자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로 삼이 어려해살이풀이라고 하지만 정말 수십 년을 살 수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으니 쉽게 믿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취되는 삼들은 대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가 산삼을 먹고 효능을 보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헬기를 동원해서 산삼 씨를 뿌린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산삼이나 인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나는데, 유독 우리나라 것이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은 약효가 다른 것들과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 기후와 토양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하나의 예에 불과하겠지만 한반도라는 땅의 영험함과 특별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소율

이 곳에서의 생활도 1년이 되어갑니다.

마음이 차분해 집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 버렸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어려운 임신 끝에 제왕절개로 외동딸로 태어나 힘들게 자라왔습니다. 늘어나는 빚더미에 폭력과 폭언이 일상이었던 아버지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를 열심히 키워내려 애쓰셨던 어머니와 반지하 고시원을 전전하며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도망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싫었습니다, 또한 가난은 더욱 싫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아픈 엄마의 모습도 한없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중국생활을 권해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다. 생각하며 중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사랑의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엄마 생각을 하며 외로운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힘들고 피곤한건 중요하지 않고 닳치는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심부름 통역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 일이 범죄에 이용되어 가는 줄을 꿈에도 모른 채 가담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빠에 대한 상처를 품고 이곳으로 도망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무섭고 무서운 악몽이 계속되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악이 되었구나’

피해자가 하나 둘 생겨나고 저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싶어 자진 출국을 결심하며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처럼 괴롭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슬픔 속에 또 빠뜨리게 한 제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가슴으로 외치며 새깁니다. 후회와 반성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 생각하며 마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려드릴 수 없지만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성숙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채워나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회개와 반성으로 다짐하며 오늘도 홀로 기도로 기다려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영정사진으로 만나뵐 할머니를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대한 미안한 마음과 반성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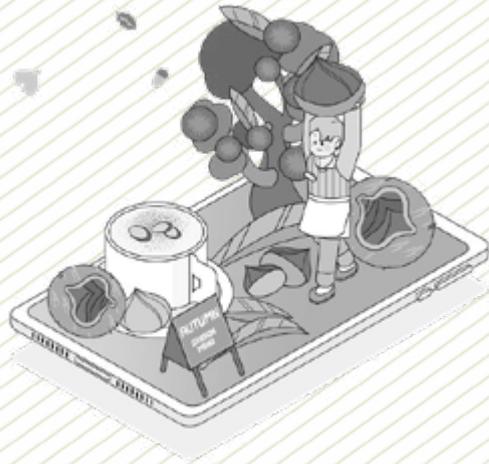
사회에 나가 구성원이 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또한 두렵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줄의 문장을 벽에 붙이며 달라질 나를 오늘도 다짐합니다.

작품평 : 제왕절개로 어렵게 세상에 나왔는데 늘어나는 빛더미 속에서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머니의 눈물과 가난도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아는 목사님의 권유로 중국에 가게 되었는데 아마도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게 아닌가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어머니에게 준 큰 슬픔은 참회와 속죄를 진심으로 하면 많이 덜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태종

이름있는 대기업을 18년 동안 다니다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읽고 동경하고 있다가 퇴직을 결심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살고 베풀어라.”라는 글귀 또한 나의 결심을 확고하게 굳히게 만든 글귀였다.

퇴직하면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아니었다. 대기업을 있는 때와 전혀 달랐다. 이력서를 쓰고 쉬고 있다 보니 집에는 항상 애완견(보비)과 둘 뿐이었고 와이프는 회사에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서 혼자 있다 보니 쓸쓸해졌다. 프리랜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활동을 했다. 아이템은 전자회로 설계 & 프로그래밍 & 신제품 개발이었다.

사업할 곳을 찾아 계약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다.

4명의 직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름 없는 신생 업체라서 사람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직원 채용은 일단 미루고 제품 개발을 했고 신뢰성 검증도 하고 제조/생산을 위한 하청업체도 만들었다. 기계 가공업체도 거래처로 확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품을 올렸다.

그 후로 인터넷을 보고 문의 및 판매가 이루어졌다.

ON-Line 영업만으로 되어서 OFF-Line 영업은 큰 건이 아니면 하지 않고 차기 제품 개발에 몰두하면서 자연스럽게 3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업무를 분담시키고 가르쳤다.

용서를 구합니다

첫 스타트가 좋았다. ○○○에서 만나자고 해서 담당자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4개년 동안 ○○○ 광고 맡아서 한다는 업체였고 4개년 공급계약을 쓰자고 했다. 나는 회사 생활시 기술 부서에만 있어서 영업방식은 잘 알지 못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매출(순익)이 1,000만원 이상이었다.
제품 판매만이었고 재료비는 운행비 기름값과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전부였다.
회사 퇴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주일에 한 번 재료 수습을 위해 업체 방문 물건 수급 후 제조하여 판매하다 보니 사업이 쉽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다 술과 도박에 빠져 회사를 정리했다.
어느 날 기사 일을 하면서 혼자서 술 마시는 날이 많아졌는데 하루는 너무 많이 마셔서 다음날까지 술이 깨지 않고 속까지 쓰라렸다. 해장을 하려고 하는데 몸 가누기가 힘들었는데 겨우 일어나 깡술을 마셨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요리를 하려고 썩크대에 갔는데 음식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났다. 그래도 참고 설거지를 다 하고 먹을 것이 있나 찾았는데 없었다. 그리고 주머니를 찾아보니 천 원짜리 몇 장 외에 없었다.

다시 술을 사서 먹고 잠을 잤다 일어나니 저녁 시간이었다.
오후 7시가 되었는데도 와이프가 오지 않았다. 또한 전업 투자자로 주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주식 시장은 09:00 ~ 15:00 까지만 운영된다.

주식 투자 기법을 마스터하기 위해 새로운 스캘핑기법, 초단타매매, option투자, 선물투자를 다시 study하면서 실전에 응용하여 투자하고 있었는데, 맨정신이 아닌 취권투자를 하다 보니 잘 될 일이 없었고 그날 엄청 손해 본 날이었고 기분도 더러웠다.

와이프가 퇴근하자마자 화를 내면서 손찌검까지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

와이프는 나밖에 없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가족들을 보고 싶다. 뿔뿔한 모습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분들께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 독서, 운동을 하고 있으며 성경 필사 중에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지금부터 바르게 살자 결심을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작품평 : 이름있는 대기업에 18년 동안 다녔고 퇴직 후 전자회로 설계 · 프로그래밍 · 신제품 개발업체를 만들었다면 올인하면 되었을 것을. 술과 도박, 취중 주식투자에 범죠키까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하여 그만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네요. 이제 비로소 명상 · 독서 ·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 필사도. 제2의 삶은 개인 기업을 만들어 승승장구했을 때가 아니라 벽 안에서 사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용서를 구합니다



하수민

1984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 저의 아버지를 따라 제2의 고향인 경남 ○○로 내려왔습니다.

저의 모친께서는 저를 낳으시고 2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는 사업 실패로 비참하게 농약을 드시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제가 성인이 될 무렵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유년기 시절 아버지께 대한 기억은 어렴풋이 나지만 어머니는 얼굴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점점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처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은 어땠을까…?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제가 30살이 될 무렵 할머니께서도 지병으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때의 슬픔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주신 할머니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후 술로써 슬픔과 시름을 달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살아생전에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 귀에 박히도록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새겨듣지 못해서 지금에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년이 되고 사회생활을 할 무렵 항상 술의 문제 때문에 경찰서도 자주가고 심지어 교도소까지 가게 되는 상황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

○○에서 잠시나마 성실하게만 지내왔던 날들이 솔로써 모든 게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서 무작정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신게 되었습니다.
오라는 곳도 없고 반겨 주는 사람 없는 외톨이의 방향….

당장 잠잘 곳과 먹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이 저를 헤어 나오질 못할 늪의 수렁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지방에서 몇푼 돈은 가지고 올라왔지만, 시일이 지나는 동안 주머니는 무일푼, 그렇다고 서울에 친척이나 잘 아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암담했습니다.

계속 방향만 하고 안 좋은 생각만 하다 보니 남의 돈을 훔쳐서 당장 배고픔을 달래고 싶었고, 술이 깨고 눈을 떴을 때 커다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시작된 ○○○ 경찰서 유치장부터의 구금 생활과 지옥의 불덩이 속에서 어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하고 혼란된 심증으로 수감 생활을 해오면서 하루하루가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밥을 먹고 싶지 않아서 밥을 굶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밥도 잘 먹으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행의 수행길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괴로운 고통이 따르더라도 참고 견디며 살아보자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뉴스 언론에까지 보도됐던 ○○○ 방화사건, 그로 인해 한 사람의 고귀하고 소중한 한 생명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때늦은 후회 속에 제 마음은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의 그 당시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더 아플 뿐입니다. 정녕 가슴에 대못 박힌 분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홀로 합리화만 하려고 한 저 자신이 너무 미워지지만 합니다. 25년이라는 구형을 받았습시다. 저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무거운 형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장기기증, 저도 언젠가는 불의의 사고라든지 죽음으로 세상을 마무리할 때가 올 때쯤 저의 소중한 장기가 어느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기에 꼭 신청하려 합니다. 저의 올바른지 못한 행동으로 한 생명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여 저도 이에 합당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또 다른 누군가가 저의 장기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어 나오질 못한 남은 유가족 피해자분들께서 하루빨리 피해 회복과 큰 상처, 고통이 아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저 때문에 돌아가신 고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죄송하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 언젠가는 꼭 고인이 영면에 계신 곳에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보려 다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못 받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된 도리로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꼭 찾아뵙고 진심으로 기도드리려 합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임을 저는 결코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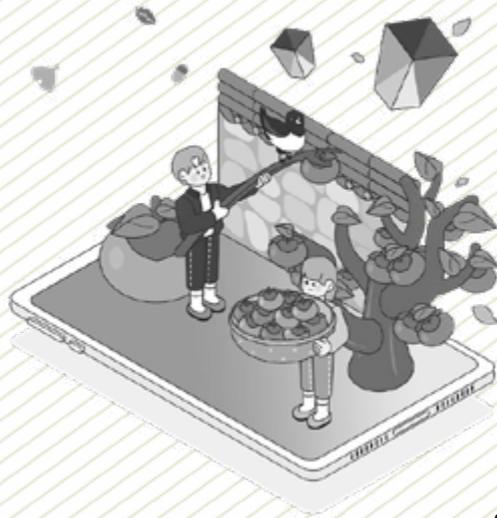
모든 게 영킨 실타래가 언젠가는 처음으로 깨끗하게 풀려 또 나은 삶을 준비하려 합니다. 제가 비록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자유를 제한받는 수용자가 되었지만, 결코 희망을 제한받지는 않았습다. 이곳에서 시간을 오로지 고인만을 위한 시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 수용 생활의 긴 끝에 다시 저에게 찾아올 자유로운 내 인생의 길 위에 희망의 씨앗을 얼마나 뿌릴 수 있게 될지 결정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낸 장본인이 이제 와서 선처를 바라는 것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두 번 다시는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다짐을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남은 유가족 여러 피해자분의 지울 수 없는 큰 고통이 치료되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고인에게 다시 한번 진정으로 사죄드리며 죽는 날까지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작품평 : ○○○ 방화사건의 주인공이 쓴 용서의 글 잘 읽었습니다. 두 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사업 실패 후 농약으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뒷바라지해준 할머니의 은혜에 보답은 못할 망정! 술이 과연 위안이 되던가요? 오히려 마음과 몸이 무너지게 한 술이었습니다. 25년 구형을 받았으니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야 할 터인데, 장기기증을 통해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잘 읽혀집니다. 하루가 쌓이면 생애가 되니 뉘우침의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



이상봉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 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용서의 글을 쓸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용서라는 단어도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용서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10살 때 의붓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매일 이유 없이 매를 맞고 때리고 학대를 당해 왔습니다. 저는 그 매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린 저는 낯설고 일가친척 없는 저는 전봇대에 붙여 놓은 전단지를 보고 이 공장 저 공장으로 옮겨 다니며 눈물로 하루하루 돌아다니다가 어느 중국집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중국집 주인아저씨가 저를 안고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고 저에게 다정다감하게 물어봐 주시고 저를 자식같이 측은지심이 드셨는지 저를 자기 집에 있으면서 일을 해보라고 하셨고 홀 써빙도 하고 배달도 하고 사장님도 주방에서 일을 시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루 12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해가 가고 제 나이 11살, 주방장님이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를 주방에 두고 기술을 가르치고 싶다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부터 주방에서 내가 시키는 일만 하라고 이야기했고 주방사람 모두에게 상봉이는 내가 데리고 전적으로 일을 가르칠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봉이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못 박듯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주방장, 찰판, 칼판, 면장(면을 빼는 사람), 강고(석탄을 때는데 꼬챙이로 쭈셔주면서 튀김을 맡아 튀겨주는 사람), 짜완(설거지를 하면서 양파 등 야채를 다듬어 주는 사람) 2명, 그리고 저 이렇게 8명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주방에 8명이면 2홉들이 소주 8병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힘들 때 한잔씩 하면서 일을 하라는 주인들의 배려라고 하더군요. 짓궂은 주방장님은 장난을 치는 것처럼 저에게 소주를 조금씩 먹이곤 했지요. 저는 멋도 모르고 넘죽넘죽 받아 마시곤 했습니다. 저는 11살 때부터 술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맥주 글라스로 1/3잔이 반잔이 되고, 반글라스에서 한글라스가 되고, 이렇게 기술과 같이 또한 술도 늘어만 갔습니다. 당시 그 중국집 주방장이 서울 시내에서 내로라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기술이 좋은 주방장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술을 전수받아 18세에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주방장이 되고 돈을 버느라 39세에 결혼을 해 아들, 딸 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한 채 징역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또 징역을 살고 출소를 하면 또 똑같은 죄명으로 징역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2014년 1월 29일 이번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도저히 제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2003년도에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친권까지 포기를 한 상태인지라 술은 점점 더 심하게 마셨기에 알코올 중독으로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저 자신이 한스럽기만 합니다. 천추에 저지른 죄를 만년간인들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용서를 구합니다. 어찌 용서가 되겠습니까.

저로 인해 하늘나라로 가신 분께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그곳에서는 저 같은 놈을 만나지 마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무슨 말씀을 드려도 변명 밖에 다른 무엇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용서, 용서, 용서, 용서라는 단어 생을 다하는 날까지 빌고 또 빌겠습니다.

작품평 : 의붓아버지의 학대가 심해 가출을 한 것이 열 살 때였다고요. 그렇게 일찍 주방장이 되었다면, 39세에 결혼해 남매를 낳았다면,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결국 취중에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태생이 불우하다고 해서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생이 그랬기에 오히려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겠지만 남은 날들을 이타심으로 살아가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임복실

저는 마약미수 투약으로 구속된 임복실입니다. 먼저 밖에서 응원해주고 기다려주는 남편에게 용서를 빕니다. 벚꽃이 피는 봄 3월 23일 결혼기념일에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배웠고 팔아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마약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했고 판매를 하면 돈도 벌고 저축도 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하였다.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를 시작했을 때 돈을 많이 벌어 신랑을 속여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판매를 했다. 1년 동안 매일같이 마약을 했고 어느 순간 중독된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처음으로 되돌리기에 이미 늦어버렸고 사회생활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혼자만 남게 된 기분이었다.

나는 함경북도 ○○군에서 태어난 탈북민이다. 중국 경계에서 살다보니 중국 방송이 나오고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상상과 동경이 시작되었다. 29살이 되던 해에 화폐교환으로 북한이 휘청거렸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중국과 한국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도 장사를 하다가 화폐교환으로 망해 죽으려고 약까지 먹었지만 내 맘처럼 되지 않아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다. 잡히면 죽으려고 약까지 챙겼고 두만강은 생각보다 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2010년 3월 14일이라 많이 춥고 두문이 열음이 보이고 물이 흘렀다. 나무를 잡고 물에 뛰어들어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수영을 하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얼어붙고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힘이 들었다. 밤에 택시를 타고 중국 연길에 도착했고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 가는 버스에 올랐고 30시간씩 가는 버스를 갈아타면서 베트남 경계까지 오게 되었다.

거기서 20명의 일행을 만나 험한 산을 이틀 내내 걸으면서 모두가 굶고 지쳐갔다. 라오스로 가는 악어강 앞에서 배를 타고 몸을 실었고 그 배는 태국까지 가야 했지만 라오스 입구에 모두 내려놓고 배가 사라졌다. 이제부터 산길을 찾아 태국으로 가야했지만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없이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렸다. 잠깐 쉬는 틈을 이용해 일행과 갈라져 물을 찾아가다가 물 앞에도 못가고 정신을 잃었다.

같이 있던 일행들은 나를 찾다가 가버렸고 깨어났을 때는 산에서 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고 불쌍해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 밥을 차려주고 잠까지 재워주었다. 다음날 먹을 것을 챙기고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태국 방향으로 며칠을 걷고 또 걸어서 태국에 도착했다. 태국파출소와 교도소를 거쳐 방콕 인민보호소에 도착했고 헤어진 일행을 만나 울고 또 울었다. 죽은 것이라고 믿었던 애가 살아왔다고 다행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2010년 5월 28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고 인천공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한국 오자마자 건강검진을 했고 국정원과 하나원 교육을 받고 2010년 11월 25일 강원도 ○○시민이 되었지만 북한에서 본 드라마와 대한민국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 하지만 자유로운 몸이 되어 좋았고 내가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다.

북한은 자유가 없고 서로 통제하고 일을 해도 나라에 바치는 것이 90프로이고 10프로도 자기한테 차려지는 게 없이 살아왔다. 정신없이 호프집과 각종 알바를 하던 중 친구의 신랑소개로 남편을 만나 2013년 3월 23일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가족이 없는 나를 친딸처럼 보살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다.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다.

몇 년 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몇천만 원의 돈을 남겨주셨지만 빚을 갚기 바빴다. 누구보다 열심히 농사와 각종 장사를 하면서 살다 보니 사는 것이 차차 나아지기

시작했다. 받았던 사랑과 감사함을 시어머님께 되돌려 주기에는 폐암 판정을 받게 되어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장사도 안 되고 일거리도 줄어들어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생계유지하기가 힘이 들었다. 그럴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갔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하늘과 조상을 탓하곤 했다. 그런 현실을 잊기 위해 마약을 찾았지만 현실도피보다는 쾌락에 빠져 버렸고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에 금지된 마약을 팔고 투약하면서 신랑한테 들통날까 봐, 경찰에 잡혀 갈까 봐, 매순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냈지만 마약을 끊지는 못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나와 친구의 손목에 어느새 수갑이 채워졌다. 아무것도 몰랐던 신랑과 시어머님은 큰 충격에 빠졌고 시어머니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그런데도 신랑은 나의 편이 되어주고 이해해주며 자기가 부족해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이라며 미안해하면서 자책했다. 신랑은 죄를 지었다면 달게 받고 반성하면서 잘 있다 나오라고 힘을 주었으며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목 빠지게 나를 기다리던 시어머님께서도 나와 아들 걱정만 하시다가 2022년 6월 25일 세상을 떠나셨다. 나 하나로 가정도 망가지고 시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고 안 좋은 소문만 돌았다. 나는 시어머님께 죄를 지은 며느리로 남게 된 것이다.

나는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2년이라는 선고판정과 1,000만원의 추징금이 나왔다. 1년 5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처음 들어왔고, 집단 폭언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과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차차 적응해 갔다. 앞으로도 전과자의 딱지가 붙은 채로 살아야 하고, 마약을 하지 않아도 했다는 의심을 매번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잘살고 싶은 희망 하나로 북한에서 목숨 걸고 왔는데 옥중에 갇히고 보니 후회가 되고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한다. 옥중에서 지내는 동안 단약했으니 이번 기회에 마약을 끊고 새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출소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접견 때마다 불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때면 되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저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나 미안해서 당신에게 할 말이 없지만 죄를 씻고 나가면 당신의 아내로 내조하면서 받았던 사랑 그 이상으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보 저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줘서 감사해요. 당신이 있기에 외롭고 힘든 옥중에서 버틸 수 있었고 마약을 끊어야겠다는 생각 또한 할 수 있었어요.

고생하신 시어머님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아들과 알콩달콩 잘 살겠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작품평 : 탈북의 과정이 워낙 파란만장해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남한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마약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일시적인 쾌락은 결국 긴 고통을 선사합니다.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 단단히 결심하여 다시금 주부로 돌아가면 제3의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진심어린 반성을 위한 깨달음



김재우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꽃다운 나이에 인신이 구속되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이제는 30살을 앞둔 29살이 되었습니다. 이글은 저에게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분과 이 못난 자식, 그리고 못난 동생을 가진 저의 부모님과 누나들께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심 어린 반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저 시간을 보내며 버티면 되는, 그저 '잉여'같은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최근 민사를 통해 피해자 분들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민사 일을 저희 가족들이 직접 발로 뛰며 해결을 해 주셔서, 모든 일이 해결되었고 접견을 하면서 저의 어머니가 해주신 말 한마디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우리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너가 저지른 일들로 아들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하며 꾸짖음을 하셔도 모자를 서운함을 저를 다독여 주시고 이제는 해결되었으니 행복하게 잘 살아보라며 진심어린 사랑으로 안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날부터 목표가 생기고 반성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을 나 자신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 누나들 내 가족들에게 주겠다는 목표와 지금은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그날이 오기만을 바라며 후회하고 곱씹으며 반성함에 제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내겠다고 마음속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진심어린 반성을 위한 깨달음

나누는 것, 내가 걷고 싶은 곳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 일상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일상들조차 사회와 격리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을 어겼기 때문이고 이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후회와 반성을 하는 것이 진심어린 반성을 위한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서 나 자신만이 아닌 날 믿고 기다려주는 가족들과 함께 이 행복을 같이 누리고 싶어 여기 있는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고 새겨 두었습니다.

피해자님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저로 인해 행복을 빼앗긴 그 날들을 어떤것으로도 갚을수는 없겠지만 저의 깨달음을 통한 진심어린 반성으로 일상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이시간들을 성장의 시간으로 보내고 출소후에도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되어있다면 한번 더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죄의 값은 출소를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나서야 조금씩이니까 갚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피해자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께 앞으로 자랑스럽고 봉사할 줄 아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테니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저뿐만이 아닌 다른 수용자들도 반성이라는 것은 소중함을 깨닫는 것에서 오고 그 소중함은 크고 비싼 것이 아닌 작고 사소한 행복에서 오는 것이라고 깨닫고 수용기간을 값진 성장의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평 : 무슨 죄를 지었기에 3년 4개월의 형기를 보내게 되었는지 죄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머니 말씀이 진리입니다. 행복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지요. 온 가족이 아무리 노력해도 병자가 나오고 좌절을 겪게 됩니다. 봉사할 줄 아는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는 말이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실수를 딛고 일어나 우리 사회에 큰 쓰임이 되는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글 (가을 하늘)



김선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인출 모집책으로 구형 4년에 실행 2년 6월을 받은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2020년에 ○○구치소에서 본소인 ○○교도소로 이송되어 온지도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구속 당시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한없이 죄송해서 화장실 한켠에 앉아 세수하며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범죄는 제가 ‘살면서 저런 것을 당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유흥에 빠지고, 돈맛에 미쳐들더니 저도 모르게 어느새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마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돈의 자만심이 결국은 저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옥이란 곳에 발을 딛고, 제 자신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이 곧 현실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구속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독거실에 2주간 격리되어 있었는데 처음 감옥이란 곳의 방을 들어가 보니 쾌쾌한 냄새, 모포 2장, 식판, 수저 오로지 이게 끝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가로로 누우려 하면 목과 허리가 꺾이고, 세로로 누우면 밝은 취침등과 화장실 냄새 거기다가 처음 겪는 수용생활에 구매도 스스로 할 줄 모르니 이곳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수개월 흐르고 재판 선고 날이 어김없이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선고의 결과는 공범은 2년, 저는 2년 6개월이란 선고가 떨어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고 후 한 달 뒤, 저는 바로 교도소로 이감 조치되고 저는 제 죄와 한일들을 부정하고 살다가 첫 징역이라서 그런지 ○○교도소 ‘자동차정비’ 직훈까지 순탄하게 합격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훈 이송이 미뤄지다 어렵사리 ○○교도소에 입감하게 되고, 그렇게 제 징역길은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과 저로 인해 같이 옥살이 하시는 것 같은 가족들에게 참회의

용서의 글 (가을 하늘)

반성과 목표없이 여차저차 인생을 살다보니 그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었는지 저는 직업훈련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본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마음의 인생은 위태로운 방향의 길뿐이란 것을 그 순간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진심으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고 조금씩 노력하다보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나 자신만이 바뀌는 것일 뿐 저로 인해 생긴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또한, 허리 협착증에 대장암까지 겹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죄송해서 한없이 맘속 깊이 눈물만 흐릅니다. 현재 저는 몇 개월 후 사회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분들과 아버지께 대한 죄송함에 고개를 뺏뺏하게 들고 다닐 순 없을 것만 같습니다. 비록,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입장이지만, 아버지와 피해자분들께 꼭 이말 한마디는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생긴 모든 상처와 슬픔, 괴로움... 모두 가능한 일이라면 제가 다 짊어지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미 일으킨 범죄는 돌이킬 수 없겠지만, 곧 사회복귀를 잘 준비해서, 저로 인해 일상과 감정,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뒤틀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 제자리로 원만히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떤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과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 글이 참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줬고, 지금 현재 저는 모두를 위한 새도약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수용 중인 독자분들도 얼른 죄책감에만 깊이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악몽을 깨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주변에 어둠 속에 갇힌 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힘껏 새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고 구름한점 없는 ‘가을하늘’로 뛰어들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삶이 되시길 모든 수용자들에게 힘차게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 저의 가족들, 못난 저를 용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사과드립니다.

작품평 : 보이스피싱 인출 모집책으로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의 돈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내 돈으로 만드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지요. 내가 맘 흘려 번 돈이 아니라 그 돈은 술술 나가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지금처럼 벽 안에서 살아야 하고요. 참회와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곳에서의 나날이 새로 태어나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글” 부분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바 지 랑 대

박
완
규

땡볕에 서있는 나에게
 지나가는 구름의 눈물
 목마르지 않나
 온 마당 두드리면 그대
 목마름인지 그리움인지
 숨넘어갈 때도 있지
 하늘은 찢르면 안 돼
 두 팔로 머리 칭칭 감은 빨랫줄
 지척을 하늘로 이고 있어
 뿔 머리에 앉은 고추잠자리
 시선을 휘방 놓을 때
 바람 한 점 겨우 와서
 흰 빨래 나부끼는데
 하늘은 지르면 안돼
 고추잠자리의 전언
 구름송이 걸리면 솜사탕인데.

※ 바지랑대(빨랫줄을 받치는 장대)

작품평 : 잠자리들은 아슬아슬한 꼭대기에 앉곤 합니다. 사방이 절벽인 바지랑대 끝에 앉은 가벼움을 생각해봅니다. 가족의 젖은 옷을 말리는 빨랫줄을 자랑스럽게 치켜올린 바지랑대의 모습에서 왠지 우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바지랑대에 구름이 걸려 달콤한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가을 하늘. 달콤한 동심이 느껴집니다.



청송의 계절

정종기

고향을 그리다 꿈에서 깨어보니
푸른하늘 구름위로 맑은 가을 드높이 오른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청송 등지에 내리니
어느새 용숫바람이 매서워져 온다

바라본 서낙하늘 황혼이 쓸쓸한데
길 잃은 낙조는 담장위로 쏟아진다

처량한 매미소리 어제 같은데
비어있는 꺾데기에 잔서리만 내렸구나

무명산 능선따라 오색잎 떨어지니
노닐던 동무들 설 곳 찾아 떠나간다

무심한 달빛은 유유히 흘러가는데
뉘일곳 없는 겨울나무 빈 가지만 떨고있네

담장 밖 반변천은 동서로 휘감아
동지를 이별하고 남으로 돈다

작품평: 생은 한바탕 꿈, 깨어보니 눈에 선한 고향의 모습. 계절이 오고 갈 때마다 한 모습만으로 머물 수 없는 겨울나무는 시인이 아니겠는지요. 강물은 제 의지대로 흐르지만 자연을 거스르지 못하고 동서로 휘감아 돌고, 동지를 떠나 남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 정겨운 묘사들이 어느 가을날처럼 쓸쓸합니다.



가을, 고요한 바다

목진호

참, 높고 깊다 저 바다
파도 없는 바다

풍덩, 가라앉고파
높이, 더 위로
위로, 더 높이

언젠가는 꿈결 그리던
그녀와 닿을수도

힘껏 두팔 뻗쳐 올리면
건너 가볼 수 있을까
저 빛 닿지 않는 심해까지도

숫구쳐 뛰어 보지만
그녀 머릿결 세차게
토라지듯이

도망치는 바다야..
나에겐 우러러 볼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듯이.

저 텅 빈 바다는
쫄 수 없는 하늘빛
선물이라네

참, 높고 깊다 저 바다
파도 없는 바다
가을, 고요한 바다

작품명: 흰 물결구름이 하늘의 파도가 아닐런지요. 가을 하늘이 고요한 바다라는 시선이 잘 전달되는 시입니다. 가을 하늘이 그렇게 깊고 높은 이유는 닿고 싶은 사람을 향한 마음이 깊고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허공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지요. 가을 또한 붙잡을 수 없는 시절이어서 더 외로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버 지

박
자
호

저는 별 사냥꾼이었습니다

목말을 타고
이 밤 저 밤 헤일 수 없는 별을 따다가
가슴속에 숨겨두었지요

아버지는 꿈을 태운 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별은 점차 멀어지고
그 수도 줄어 갔습니다

저 역시 숨겨두었던 별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별을 따르는 길잡이가 되셨습니다

오랜만에 별이 총총히 빛납니다
아이가 별을 따달라고 합니다

저는 기꺼이 꿈을 태운 말이 되기로 했습니다.

작품평 : 우리는 한때 모두 별 사냥꾼이었지요.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고 했던 맹세가 헛맹세만은 아니었더랬습니다. 마음을 다하려는 표현이었지요. 지켜주고 싶었던 그 약속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요. 누군가 희망을 위해 땀뿡기를 할 때 기꺼이 그 사람의 발판이 되겠다는 마음도 함께 보입니다.





풍 난

안
철
호

어찌 살았누

바람을 이르는 솜씨가
일품이구나

무거움과 가벼움을
진즉알고

세상의 허물을
벗어 던지니

초화의 향으로도
폭풍을 흔드누나

작품평 : 무심히 그린 그림의 꽃향기가 폭풍을 흔든다는 마지막 연이 인상적입니다. 모진 폭풍을 견디면서 품위를 지켜낸 난에게서 시련을 견디고 있을 누군가를 그려보게 됩니다. 바람을 이르는 솜씨가 붓끝에서 휘어지는 난잎이 아닐런지요. 바람이 있어야 사는 풀잎 한 자락에도 생의 의지가 보입니다.





열 개의 밤중에

리쾨니

열 개의 밤중에 당신의 밤은 어디 있습니까
혹여나 잃어버린 그 밤이 안타까워 슬퍼하고 있진 않나요
어딘가에 있을 당신의 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크고 작은 전나무로 둘러싸인 녹색의 다리를 건너다보면
다르게 귀결된 너와 나의 시간은 평행으로 흐르고
하나하나의 자국들은 깊이가 다르게 맺혀갑니다
다리 아래로 흘러간 물의 결들은 지금 어디에서 흐를까요

시간의 안부와 당신이 맺힌 그 다리에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당신의 휘파람이 나를 울리고 맙니다

열 개의 밤중에 그 하나는 나입니다
별이 없는 날 별로 수놓은 날
어머니 가슴처럼 온화한 날
그 온화함이 더욱 따뜻한 조금 시린 날
그리고 그 사이의 날들
쓸쓸함이 있고 잠깐의 시름도 있겠지만
기다림 끝에 늦은 포옹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별이 되어 깊은 밤을 투영(投映)합니다

조용히 웅크려 잠들기 전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홉 개의 밤은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으니
이제 당신도 깊은 바다를 수영(游泳)하라고
그러면 곧 금강석으로 빛나는 한 밤을 찾게 될 거라고

당신의 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이 밤의 풍경이고 당신을 닮은 그도 당신의 밤이니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당신도 하나의 밤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충분히 행복해 가슴깊이 울고 또 옵니다

작품평: 열에 하루는, 단 하룻밤만큼은
누군가에게 귀한 사람이고저
하는 심정이 애뜻하게 다가
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듯
누군가 나를 생각하는 밤. 그
밤의 포옹은 화해일 것입니다.
또다시 열 밤을 기다리더라도
기다리는 그 행복으로 긴긴밤
들을 건드는 것이야말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의 방울

이상구

몇 년 전 어머니를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
더운 날이었던 듯싶게
반팔 티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다

비가 내리는 날
다이소에 들려
액자를 사고서 되돌아오는 길에
중랑천 물도 흐르고 있었다

사진을 액자에 넣고서
네 모퉁이 안에 자리 잡고도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 안계시지만

사진 뒷면에 임종일을 적는다
0000년 00월 00일
다음 해 0000년 00월 00일에
어머니의 얼굴 위로 향이 피어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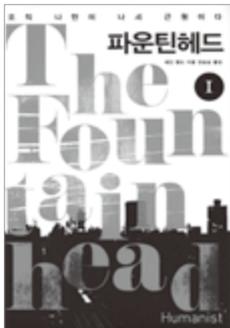


작품평 : 우리에게겐 모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는 애잔한 마음이 사진 한 장 속에 담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찍었던 사진 한 장이 영정사진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지요. 효심은 언제나 늦는 것이어서 무심한 어느 하루는 몰일이 되기도 합니다. 문득 인연의 순간순간들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시” 부분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파운틴헤드」를 읽고

홍가람



이 소설의 저자인 에인 랜드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나 조국의 사회주의 광풍에 환멸을 느끼고 미국으로 건너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객관주의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이 목적이자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녀의 객관주의 철학의 집합체가 바로 이 소설 『파운틴헤드 The Fountainhead』입니다.

『파운틴헤드』는 193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건축가들의 세계를 다룹니다. 자아실현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하워드 로크’, 타인의 통해 삶의 의미와 힘을 얻는 타인중심주의자 ‘피터 키팅’, 빈민가에서 태어나 언론재벌이 된 ‘게일 와이낸드’, 이타주의를 무기 삼아 자기희생을 강요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엘즈워스 투히’, 이 네 인물을 통해 개인주의와 집산주의, 이기주의(자기중심주의)와 이타주의(타인중심주의)의 대결과 혁신적이고 독자적인 삶이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정의하는 ‘이기주의’, ‘이타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기주의란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 꾀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이타적인 사람은 자기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저자가 생각하는 이기주의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족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생적이며, 바로 여기서 창조성이 발휘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로운 것들을 발명해 내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독자성이며 어떤 형태의 구속이나 희생을 거부합니다. 진정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남들의 인정 따윈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이타적인 사람은 기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생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된 동기가 됩니다. 내가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문제가 전도(顛倒)된 인식의 가장 심각한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자가 말하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자주적인 사람과 의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품의 원제는 ‘간접인생들(Second-hand Lives)’이었다고 합니다. 간접인생을 사는 사람들(의존적인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과시를 원하고, 남들의 시선에 의해 성공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남에게서 빌려온 생각을 스스로 아무런 의미도 못 느끼면서 떠들어대며, 마치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룬 것인 마냥 본인의 명예로 삼고, 명성, 감탄, 부러움과 같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을 얻기 위해 삽니다. 저자는 자아가 없는 간접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려 합니다.

에인 랜드가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 즉 자주적인 사람은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을 해결하고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도 안되지만, 타인을 자신의 희생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타인에 의존하며,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며 살아가는 삶은 간접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 소신대로 산다면 남이 피해보는 건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기 위주로 생활하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며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남을 기망하여 뺏어내고, 남에게 기생하여 얻어낸 콩고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아 실현이 주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과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적으로 산다기보다 비겁하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자주적으로 산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에서 로크와 같은 인물을 만난다면 상대하기가 다소 꺾끄러운 사람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소설 속 로크의 행적을 보며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면 좋을 텐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해줬으면 싶은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적당함을 요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로크와 같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찾기란 매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로크라는 인물에게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고,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소설이 사랑받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설은 1, 2권 합쳐 1,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져 지루할 틈 없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 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소설이 1943년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우리의 사고 방식도 그만큼 달라졌을까요? 80년 전 소설 속의 배경이 되는 시기 이후, 대공황, 2차 세계 대전, 냉전의 시대를 거친 긴 시간이 흐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다지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남에게 의존하고, 남을 의식하며,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남에게 존중을 강요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타인이 아닌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멘탈은 매 순간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가슴 속에 각자의 사연을 품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껏 간접인생을 살아 왔던 건 아닐지, 그 동안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에게서 비롯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여기서의 시간이 아깝고 낭비된다고 생각되겠지만, 이 안에 있는 동안 내 소신이 무엇인지, 내가 평생 꺾지 않을 나만의 뚜렷한 신념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 이 순간을 회상했을 때 지금이 그리 아까운 시간은 아니었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한편 소설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와이넨드와 로크의 첫 만남입니다. 간접인생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 고독하게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살아가던 두 남자가 처음 만난 순간, 상대방이 같은 부류의 인간임을 알아보는 장면. 두 남자는 이 순간 이성(異姓)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이성(理性)적인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누군가를 순수하게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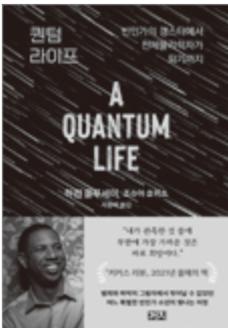
에인 랜드가 추구하는 인간 정신을 이상적으로 구현한 인물인 ‘하워드 로크’. 소설 속 그의 최후 변론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며 부족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자기중심주의자는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는 타인들을 통해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 즉 목적이나 동기, 사고, 욕망, 에너지의 근원에 있어서 타인들과 무관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자신을 위해 존재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능한 유일한 형제애이고 상호 존중입니다.”

작품평 :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해 새롭게 정의 내리고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이 됩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서술뿐만 아니라 소설 속 인물과 현재 생활을 주장과 잘 연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주의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꾸어야 함을 배웁니다.

「퀀텀 라이프」를 읽고

이수호



좋은 기회로 '퀀텀 라이프'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마약 중독자의 극복기가 책의 주제는 아니고 '불가능한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권하는 무책임한 자기계발서 또한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의지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가치임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빈민가의 갱스터에서 천체 물리학자가 되기까지의 하킴 올루세이의 의지와 희망의 운명을 뒤바꾼 인생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하킴 올루세이는 36시간 동안 마약에 취해 있던 소년이었습니니다. 코카인 가루에 물, 베이킹소다를 넣고 가스레인을 가열해 '록'이라는 마약을 제조한 그는 영화에서 보는 흔한 마약중독자는 아니었습니다. 소속은 스탠퍼드대 물리학과 대학원, 하킴 올루세이의 젊은 날은 이처럼 모순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올루세이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과학임무국에서 근무하고 플로리다 공대와 메사추세츠 공대 등에서 우주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입니다. 대마초 담배를 말아 학교 친구들에게 단돈 1달러에 팔던 길거리의 갱스터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조각해 냈을까요.

저자의 유년기 기억 속 가족들은 거의 자동차 안에서 살며, 매년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외도를 의심받은 엄마는 담배꽂초가 가득 찬 무거운 유리 재떨이를 남편에게 던지고, 전직 아마추어 권투선수였던 아버지는 아내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뒤로 나자빠진 아내 옆에서 남편은 당황해 무릎을 꿇고 끼이끼이 울고 있던 장면.

그들의 가여운 생계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작 6세였던 율루세이도 대마초를 다듬고 포장해야 했습니다. 수확한 대마초를 훈제실 안에 걸어두고 말린 뒤, 저녁식사를 마친 온 식구가 빙 둘러 앉아 대마초를 5달러, 10달러 봉지 안에 넣는 삶이었습니다.

율루세이는 갱스터였던 사촌 형의 “길거리에서 눈을 마주쳐도 되는 사람과 절대로 눈을 마주쳐선 안되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 따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했지만 저자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교과서를 받아온 날 밤에 책을 모두 읽어버려 정작 한 학기동안 수업시간이 따분했고, 틈만 나면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율루세이에게 회심의 순간은 벼락처럼 찾아왔습니다. 22권짜리 백과사전을 첫 항목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읽던 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빠져들었습니다. 질량에서 벗어난 에너지가 지구를 데우고 농장에서 옥수수를 자라게 한다는 과학적 사실, 시공간의 곡률이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고, 성장과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내용에 저자는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이후 그는 공부했고, 기적적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진학한 대학에서도 율루세이의 정체성은 ‘갱스터 물리학자’였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용돈을 벌기 위해선 마약과 근접한 삶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학부에 이어 대학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대마초 거래 현장에서 40달러 때문에 마약중독자들에게 총을 쏠 뻔했고, 다른 접선 장소에선 일이 틀어져 총을 맞을뻔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와의 절연을 선언합니다. “마약을 하면 나의 존엄성이 추락한다. 되돌아가면 추락하게 될 거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율루세이의 곁에는 끝없이 그를 지지하고 바라봐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스스로, 자신을 수렁에 빠뜨리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조차도, 과학 전람회에 나가기 위해서 학교의 가장 비싼 물건인 최신 컴퓨터를 집에 가져가게 해달라는 그의 과감한 부탁을 들어주던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코카인에 빠져 잘못된 이중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했음에도 그를 쫓아 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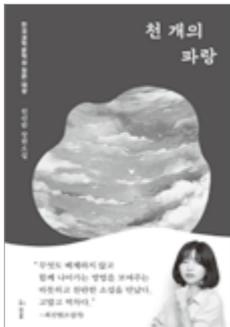
주었던 지도 교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올루세이의 이야기에서 진짜 주인공은 바로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봐 준 이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책 제목 ‘퀀텀 라이프’는 미시세계에서 ‘양자 터널링’이라고 부르는 현상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거시세계에선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벽을 미시세계의 입자가 뚫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미시세계에서 입자는 파동처럼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고, 약간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입자는 벽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하킴 올루세이의 삶이 저 입자를 닮았습니다.

퀀텀 라이프의 이야기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온 인생 역전의 이야기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끝없는 지지와 무한한 응원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마치 별 속의 원자핵들이 무한에 가깝게 수없이 서로 충돌하면서 결국 돌을 가로막는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어 융합할 수 있듯, 누군가에 대한 무한한 지지는 그를 막고 있던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어 결국 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별을 찾아 나섰던, 천체 물리학자의 다음 문장은 이 책을 응축합니다. “내가 관측한 것 중에 무한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희망이다.”

작품명 : 명과 암, 흑과 백의 세계에 놓인 주인공을 잘 보여주었고 진짜 주인공은 교사, 지도 교수 등 그의 곁에서 지켜봐 준 이들이라는 주장도 좋습니다.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잘 찾았습니다. 새길 또한 진짜 주인공들이 올루세이에게 했듯이 끝없는 지지와 무한한 응원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천 개의 파랑」을 읽고

양도영



오직 투데이(소설 속 경주마의 이름)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는 천 개의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들은 모두 하늘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파랑색처럼.

〈천 개의 파랑〉은 파랑파랑해서 눈부신 하늘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툭 떨어지는 눈물 같은 SF소설입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해볼까요.

주인공 우연재는 로봇공학에 관심이 가득한 여고생입니다. 그의 친언니 우은혜는 어렸을 때 쇼아마비에 걸려 하반신마비로 항상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닭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어머니 보경의 가게 근처에는 커다란 경마장이 성황입니다.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경마장은 인간기수 대신 더 작고 더 가볍고 사고가 일어나도 쉽게 교체가 가능한, 즉 ‘가성비’가 좋은 휴머노이드 기수를 개발하여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 이 소설의 기본배경입니다. 투데이는 흑색 갈기가 아름다운 암말이에요, 최근까지 콜리라는 휴머노이드 기수와 한 팀이 되어 승승장구했습니다. 한국 신기록 시속 100km/h까지 돌파하며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지만, 단기간에 너무 무리하게 달려버린 탓에 관절과 연골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됩니다.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지만 마주는 투데이를 무리하게 계속 출전시키고, 그날 콜리는 직감합니다. 투데이가 오늘도 이렇게 무리한 경주를 한다면 평생 불구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콜리가 내린 결정은 스스로 낙마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투데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통의 일반적 휴머노이드 기수들은 콜리 같은 '배려'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승을 최우선의 목표로 최적화된 주행알고리즘만 내장되어 있죠.

그런데 콜리는 우연히 제작 초기 단계에 작업자의 실수로 '학습과 인지를 위한 칩'이 장착되었어요. 그런 이유로 자신의 파트너 투데이를 위해 인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스스로 낙마한 콜리는 뒤쫓아 오던 주자에게 심하게 밟혀 하반신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우은혜처럼 하반신 불구가 된 거죠.

엄마 가게에서 가까운 경마장에 가끔 놀러가던 우은혜는 더 이상 뛰지 못하는 투데이와 친구가 되고, 이 특이한 휴머노이드 콜리의 사연을 알게 된 우연재는 자신의 관심사를 살려 콜리의 하반신을 고쳐보기로 결심합니다.

경마장은 완벽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관절이 완전히 망가진 챔피언 투데이는 2주 후 안락사 처치를 받도록 결정됩니다. 경주 능력이 없는 투데이에게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관리비는 마주에게 불필요한 지출이니까요. 우연재는 콜리를 고쳐서 투데이와 다시 한 팀으로 경기에 참가시키고 싶습니다. 우연재는 우연히 경마장에서 불법 승부조작이 벌어진다는 증거를 입수하고, 경마장 총책임자와 딜을 합니다. 불법 승부조작 증거를 폐기하는 대신 2주 후 마지막이 될 경마 경기에 투데이를 출전시켜주는 조건으로요. 우연재는 콜리의 하반신을 힘들여 복구시키고 투데이와 마지막 경기를 위한 연습을 시작합니다. 투데이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최고로 느리게 달리는 방식으로요.

마지막 경주 날 콜리는 투데이의 안장에 올라타고 경주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투데이는 그동안 달리지 못했던 억압을 해방된 기쁨에 흥분하고, 결국 그동안 연습했던 달리기를 잊어버리고 본능적으로 최고의 속도를 내려고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콜리는 투데이의 질주본능을 이해하는 순간 또 한 번의 낙마를 결심합니다. 천천히 낙하하는 콜리의 두 눈에는 파랑색 하늘이 가득합니다.

SF소설을 읽다보면 일반소설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상상과 질문이 쏟아집니다.

생각 하나! ‘학습과 인지의 기능을 탑재한 칩’이 장착된 콜리는 과연 인간만큼의 공감능력이 생긴 것일까요? 튜링테스트라는 인공지능 챗봇 대회가 있습니다.

서로 차단된 두 대상이 일정시간 채팅을 한 후 상대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맞추는 대회인데요, 채팅 중 대화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뉘앙스, 맥락, 중의적 표현들을 처리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투표수를 얻어 튜링테스트를 통과하는 A.I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인간이라고 공감된 존재는 인간적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A.I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더불어 ‘A.I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도 흥미롭습니다.

생각 둘! 오직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스포츠와 도박을 위해 강제로 교배되고 훈련된 경주마의 전성기는 고작 1~2년이라고 합니다. 연골이 급속히 파손되기 때문입니다. 경주능력이 사라진 말들은 보통 안락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주마뿐만 아니라 동물을 제품으로 취급하는 오만한 인간중심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은 동물에게 지옥 그 자체입니다.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란 책에서 ‘동물권’이란 개념이 소개되었지요. 우리는 지금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많은 사랑과 돈을 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반려동물에 국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물은 그저 인간만을 위해 생산, 소비, 폐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라고 당연시합니다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계 흑인은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여성을 투표권조차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인간이 동등한 인권을 쟁취하게 된 가장 큰 계기를 저는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감정과 느낌, 생각, 고통을 가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 ‘동물권’은 이것이 확장된 개념이겠지요. 공감능력이 확장되는 만큼 인간은 더 윤리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고양이의 눈동자를 10초만 서로 마주보아도 우리는 이미 공감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것을 옥시토신 분비나 거울 뉴런 (상대방이 손가락을 다쳐 고통스러워하면 그것을 보는 자신의 뇌로 같은 부위의 뉴런이 발화해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특정 뉴런)으로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시간을 몇천 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리 중 ‘네 이웃을 사랑하라’의 ‘네 이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오로가 혁명적인 사고 전환과 공감능력으로 기독교를 모든 이를 사랑하라는 세계적 종교로 확장시킵니다. 이것 역시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 인간은 우리와 공감하는 휴머노이드의 권리까지 존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교훈을 돌아봤을 때, 공감능력이 증가할수록 인류는 더 평화로워졌고, 평등해졌으며, 창의적인 혁신이 나타났고, 소외되는 이들과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비참하게 사망했던 캄보디아 노동자 속행씨의 작년 겨울의 비극은 자본주의세상에서 노동자를 그저 공감능력 없는 기계부품정도로만 간주했기 때문 아닐까요?

소설로 돌아가, 콜리는 계획한대로 마지막 경주를 투데이의 관절을 감안해 천천히 달리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맞닿은 투데이의 가슴에서 자유와 질주에 대한 투데이의 뜨거운 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속한다면 투데이는 아예 걷지도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콜리는 그래서 두 번째 낙마를 선택하며 어쩌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가 됩니다.

땅으로 떨어지며 바라보는 하늘. 콜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천 개.

모든 단어가 하늘처럼 파랗습니다. 천천히 낙하하는 콜리의 눈동자가 바라보는 파란하늘이 슬로우모션처럼 그려집니다.

<천 개의 파랑>을 읽고 조금만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작품평 : 줄거리 요약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생각 하나, 생각 둘로 정리한 질문은 소설이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라는 것이 책이 주는 선물 아닐까요. 고양이의 눈동자를 10초만 마주보아도 공감하는 사이가 된다는 말도 인상적이네요.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고

곽영진



금년에는 '이상기온'으로 6월부터 섭씨 30도가 넘는 날이 많았고 계속해서 폭염경보의 일기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더위 때문에 책 읽기 집중력이 저하될 거라 보고 작년에 읽었던 고전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3독째 해봅니다.

기원전 399년 늦은 봄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광장 한쪽에 시민 수백 명이 모여있었습니다. 70세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피고인으로 한 재판이 열렸는데, 혐의 사실은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숭배하면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검사, 판사가 없었고 누구나 고발을 내면 재판이 열리고 추첨으로 뽑힌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어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판이 개인적인 복수와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되기 일쑤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관은 500명이나 되었고, 하루 동안 쌍방의 변론을 듣고 그날로 판결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고발 사실 자체가 막연하고 증거가 없어서 무죄나 가벼운 벌을 예상하였는데 결과는 뜻밖에도 사형이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현장에 있어 변론을 상세히 기록한 이 책의 제목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썼고, 후세 사람들은 이를 읽으면서 수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엉터리 판결에 그가 아무 불만도 제기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망명할 수 있었는데도(수십 년 후

같은 상황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망명을 택했다) 왜 죽음을 받아들였을까?

그 답은 당시 아테네의 상황과 그의 신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솜씨 좋은 석공이었고 전쟁에 세 번이나 나가 용맹을 떨친 시민이었는데 40세 무렵부터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선악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못생긴 배불뚝이 남자가 추레한 옷을 걸치고 맨발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흔들며 놓았습니다. 순수한 젊은이들이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감화를 받아 제자가 되었고 사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를 무례하게 여겼고, 대화에서 말문이 막힌 엘리트들은 모욕감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붕괴 직전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구 4분의 1이 죽었고, 민주정치는 무책임한 정치가들의 선동으로 무너졌으며,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독재정권은 민주주의자 1,500명을 살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시비꾼은 불만 해소의 희생양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도 소크라테스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사실을 다루는 데에 필요한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말투로 조목조목 따지는 변론만 하였습니다. 280대 220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점을 보아도 그가 조금만 애썼다면 충분히 무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유죄 판결에 이어 사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는 변론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테네에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형벌이 아니라 대접을 받았어야 한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반감을 사서 결국 재판관 중 360명이 사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한 달간 감옥에서 지냈는데 믿기 어려울 만큼 평안했고 심지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죽음을 몇 시간 앞둔 그의 모습을 기록한 《파이돈》은 고전 문학사의 가장 위대한 글로 꼽힙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신성한 힘인 신과 영혼이 존재하며, 이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믿기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눈물 흘리는 제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망명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자신이 재판에 응한 이상, 판결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따르기로 약속한 것이라면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불의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혼탁한 그리스 사회에 도덕과 양심의 절대성을 최초로 명확히 하였을 뿐 아니라, 죽음 앞에서 진리를 따르는 실존적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플라톤이 방대한 철학을 저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스승의 언행일치적 삶을 목격한 데에 있을 것입니다. 진짜 용기를 직접 보는 것처럼 결정적인 체험이 어디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정신의 위대함이 플라톤과 바울 등을 거치면서 서양 문명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왜 죽어야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군요.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길을 향해가고 있는지는 신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좁쌀같이 왜소한 정신과 아름드리나무처럼 큰 정신이 있는 법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우리의 큰 정신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고, 우리는 그 덕에 오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3독하면서 다시금 다소 흐트러져 있는 정신을 재정리하고 정화하며 9개월 남짓 남은 수용생활을 ‘속사람’에 대하여 제 본분을 잃지 않고 선한 청사진을 다시 바라봅니다.

작품평 : 한 권의 책을 3독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좁쌀같이 왜소한 정신도 아름드리나무처럼 큰 정신으로 나아가겠지요. 아테네 광장에서 재판하는 모습과 감옥에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합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를 읽고

노장현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를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세상물정 모르던 친진난만한 아이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철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주인공 제제의 입을 빌려 철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린 왕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어느덧 마흔 여덟살이 된 제제는 자신도 너무 일찍 철이 들었었다고 말하며 그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본 책은 브라질의 초등학교 교재로 사용했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한국에서는 많은 독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섯 살인 주인공 제제는 ‘역센 털을 가진 러시아 고양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동이었습니다.

빨랫줄을 끊거나 스타킹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 놀라게 하거나 양초를 길바닥에 칠하여 미끄러지게 하는 등 못말리는 말쑥꾸러기였지요. 하지만 동생 루이스와 함께 집 뒤 뜰의 닭을 표범으로 지칭하며 소꿉장난하는 순진무구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라임 오렌지나무와 얘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도 있었답니다. 우리 성인들도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어떤 사물을 마치 실재하는 것으로 상상하면서 장난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제제는 그것을 넘어서 라임 오렌지나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위안을 받고는 했습니다. 이런 제제에게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 생각없이 말하거나 욕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제제는 산타의 선물을 기대하며 문밖에 운동화를 내놓지만 다음 날 텅 비어있는 운동화를 보고 실망하여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뱅이 아들을 갖게 되었지.” 하필이면 그때 아빠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제제의 아빠는 6개월 전부터 실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빠가 거기 계신 줄 몰랐어.” 제제는 울면서 변명해보지만 제제의 형 또또까는 ‘뺨 같은 나쁜 자식’이라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에 제제는 거리에서 구두를 닦아 모은 돈으로 담배를 사서 아빠에게 선물을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빠는 제제를 안아주며 용서를 해줍니다.

반성하는 마음도 잠시뿐 제제는 곧 잇고 자동차 뒤에 몰래 매달려 타는 장난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험상궂은 포르투갈 사람의 차에 매달려 타려다가 그만 붙잡혀 엉덩이를 두들겨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계기로 두 사람은 나이를 떠나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포르투갈인의 이름은 마누엘 발라다리스 이지만 제제에게는 특별히 보르뚜가(포르투갈인 속칭)라고 부르기를 허락합니다. 제제는 말합니다. “전 절대로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당신 곁에 앉아 있으면 전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빠가 되어 달라고, 아니 자신을 아빠에게서 돈을 주고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며 한결같이 아껴주는 보르뚜가가 어린 제제에게는 아빠보다 더 좋았던 것이지요. 보르뚜가는 제제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란다 얘야 인생이란게 생각만큼 그리 쉬운게 아니란다. 너의 가족에게서 널 데려올 수 없지만 한가지 약속은 하마. 앞으로 널 내 아들처럼 사랑해주고 진짜 친아들처럼 대해 주겠다고 말이다.”

제제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지만 행복할 것 같았던 제제에게 큰 불행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보르뚜가가 그만 망가라치다 라고 불리는 기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제는 큰 충격으로 몹저 놓고 자신 또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회복되어가던 어느 날 글로리아 누나가 흰 꽃 한 송이를 가져옵니다.

“밍기뉴(라임 오렌지나무의 별칭)의 첫 번째 꽃이야. 이제 조금만 더 자라면 열매를 맺을거야.” 제제는 꽃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하얀 꽃 한 송이가 라임 오렌지 나무와의 이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어린 자신의 한 때 꿈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아픔을 겪고 난 후 성장한다고 하지요. 제제 또한 아빠 같이 따르던 보르뚜가를 떠나보내고 나서 철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제는 라임 오렌지나무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아이의 순수함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알게 된 순간 그런 특별한 <순수함>능력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은 제제는 동생 루이즈의 요청으로 예전처럼 소꿉놀이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루이즈의 동심을 지켜주고자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신 또한 한 때 그런 것들을 믿었다고 생각하면서... 제제의 아빠 싸울로 바스콘셀로스는 공장의 지배인이 되었고 큰 집으로 이사하면 제제의 오렌지나무보다 더 멋진 나무를 먼저 고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제제는 아빠의 무릎을 잡고 흐느낍니다. “필요없어요. 이젠 더 이상 소용없어요 전 이미 제 라임 오렌지나무를 마음 속으로 베어버렸어요.” 동심이 사라진 철들어버린 제제의 아쉬움 섞인 마지막 울음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사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삶의 환멸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라는 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산타가 없지만 산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을 때가 행복했다는 것이지요.

저 또한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를 맞아 양말을 걸어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사탕이 들어 있어 놀라워하는 나에게 누나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자기가 넣어두었다고... 그 뒤로 저는 산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제와 같이 철이 들지는 못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현재 저의 모습을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때문인지 천진난만한 제제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새삼 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어린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책을 읽으며 어른들은 동심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는 가지고 있었지만, 성장하면서 잃어버리고 그 흔적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흔적만

남은 그것을 건드리는 그 무엇인가가 와 닿을 때 우리 어른들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억에 잠긴다고 생각합니다. 본 책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제제가 철이 들어 성장하는 모습을 다르게 느낄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치기어린 제제의 행동을 넓은 가슴으로 포용해주는 보르뚜가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섯 살인 제제의 행위는 어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른들도 어렸을 때 했던 행위들입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이들을 대한다면 이해하는 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철들지 못한 저 자신을 반성해보며 보르뚜가처럼 어린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마음 따듯한 어른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욕망이 없고 마냥 천진난만했던 어렸을 적 그 동심을 되찾기를 바람해보며 글맺음 합니다.

작품평 : 남녀노소 전 연령대가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누구나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이 있고 순수했던 동심을 찾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삶의 환멸을 느꼈을 때가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라는 말이 더욱 와 닿네요.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해 봅니다. 당신은 밉기뉴의 첫 번째 꽃같은 꽃이 있나요?

“독후감”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작은 여름창문



김경미

경찰서의 조사, 검찰에서의 조사, 그리고 지루하게 이어지던 두 번째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채 대법원 항소까지 갔을 때의 나는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은 아예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죄를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기만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세상의 이치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마도 형이 확정될 것 같으며 신변 정리를 준비하는 것이 어땠겠냐며 변호사님께서 조심스레 권하셨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올라 괴물 같던 나에게는 그 소리마저 튕겨 나가 발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된 것인지, 이 사회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그게 왜 나인지, 왜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오는지 등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차곡차곡 들춰업고, 살아있음에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끝이 아니라며 벌은 받되 새롭게 성실히 살면 된다면 나를 붙잡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가족들의 애원이 있었지만 이미 내 마음은 그 어떤 말도 담을 수 없는 빈 상자와 같을 뿐이었습니다.

죄인이란 이름표를 달고 생전 생각해보지도 못한 곳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의 첫날은 복새통에서 엄마 손을 놓친 겁먹은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어 무릎을 한껏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혼란스러움으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루들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여러 날을 그냥 비워버렸습니다.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자각하지 못했고, 일상이란 틀을 지키지도 않았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냥 아무것도 아니던 어느 날. 좁은 방안 작은 창문을 통해 딱 내 손바닥만큼 여름 하늘이 짙하고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그 순간. 폭발하듯 올라오는 감정의 덩어리들이 가슴속에서 큰 울렁임을 내었습니다.

“일상”이라는, “자유”라는, “평범함”이라는 그 폭발감 끈적한 습기 속에 화려한 모든 것을 태울듯한 더위. 그런 더위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 속에서 툭툭대면서 해내는 일상들. 그렇게 제 몫을 해내 가고 있는 사람들마다 각자 가슴속에 소중히 키우고 있는 작은 소망들.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있는 “자유”라는 가장 큰 행복.

나 자신 역시도 누리고 느끼고 가졌었던 소중한 모든 행동의 자유와 시간들. 작은 웃음과 행복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내 모든 잘못들이 마음속 빈 상자를 걷어내고 하나둘씩 밀려들어 왔습니다. 내가 짓밟았던 피해자의 소망감, 기대감, 간절함,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일상의 모든 것이 나로 인해 구겨지고 불태워지고 버려졌을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변명거리에 불과하겠지만 이젠 그 마음의 병을 걷어내려고 합니다. 대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용서가 아닌, 영원히 가슴속에 주홍글씨를 새기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내 잘못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숙제를 내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풀어야 할 그런 숙제 말입니다.

하늘 아래 머리를 두고, 내게서 상처를 입은 모든 이들을 위해 매일 마음으로 용서의 기도를 보낼 것, 또한 나 자신도 스스로 구원해내는 삶을 살 것.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어지러운 삶이 아니라 차분히 조용히 깊은 내면의 눈을 가지고, 내면의 귀를 가지고, 내면의 입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엮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삶이 이렇게 큰 값을 치르고 나서야 새로이 그 가치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작은 햇빛 한 조각으로 열린 새 세계를 통해 새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힘찬 한 걸음 내딛기까지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어 내공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두꺼운 철문을 열고 나설 그날. 새 모습, 새 이름, 새 얼굴, 새 마음이 되어 있을 저를 기대해봅니다.

작품평 : 작은 창문을 통해 손바닥만큼 들어온 여름 하늘이 열린 세계로 나가는 통로가 되었군요. 용서의 기도가 작은 빛이 되어 자신을 구원하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주제 의식이 뚜렷합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소재를 찾아 깊이 있는 사유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전개 방식이 뛰어납니다.





수기

40년전.. 그리고.. 아버지와 홍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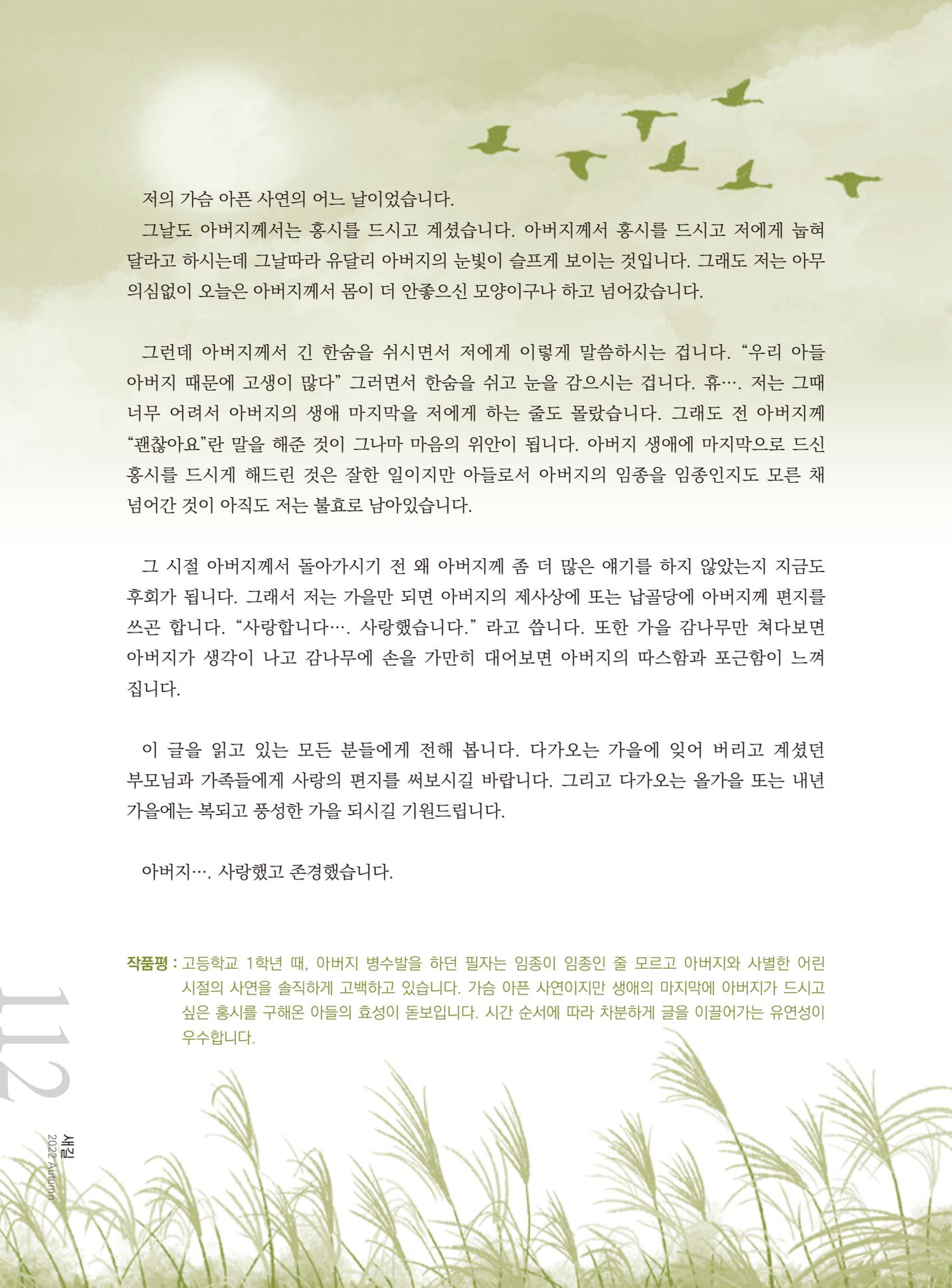
박성현

저의 얘기는 40년전 한참 단감이 무르익고 있을 무렵의 가슴 아픈 사연의 이야기입니다.

전남 ○○은 해풍의 영향을 받아 유달리 단감의 당도가 높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에 의해 단감의 단지화가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지금은 농민들의 효자특용작물로 선정되어 가을만 되면 파란 나무에 노란열매가 가득 메우고 있으며 감을 수확하기 위해 일손이 모자랄 때가 ○○의 단감재배지의 풍경입니다.

저는 3남3녀 중에 넷째 2남으로 태어나 농부의 꿈을 꾸고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을 졸업한 농업 후계자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40년전 제가 고1때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위암을 앓고 계시는 위암 환자였습니다. 제가 학교에 갔다오면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는 것이 저의 일과였던 시절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홍시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성현아 아빠가 홍시가 먹고 싶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시를 구하기 위해 옆집의 단감 과수원에 품을 팔아주고 홍시감을 구해와 아버지께 드렸고 그렇게 저는 틈만 나면 홍시감을 구해와서 아버지께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만 되면 아버지의 그늘이 많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런데 더 홍시가 나오는 계절인 가을만 되면 아버지가 그리고 40년이 지났지만 그때만 생각하며 지금도 가슴이 아파서 멍멍해집니다.



저의 가슴 아픈 사연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흥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흥시를 드시고 저에게 눕혀 달라고 하시는데 그날따라 유달리 아버지의 눈빛이 슬프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의심없이 오늘은 아버지께서 몸이 더 안좋은 모양이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긴 한숨을 쉬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고 눈을 감으시는 겁니다. 휴...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생애 마지막을 저에게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전 아버지께 “괜찮아요”란 말을 해준 것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아버지 생애에 마지막으로 드신 흥시를 드시게 해드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아들로써 아버지의 임종을 임종인지도 모른 채 넘어간 것이 아직도 저는 불효로 남아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왜 아버지께 좀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만 되면 아버지의 제사상에 또는 납골당에 아버지께 편지를 쓰곤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라고 씁니다. 또한 가을 감나무만 쳐다보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감나무에 손을 가만히 대어보면 아버지의 따스함과 포근함이 느껴 집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 봅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잊어 버리고 계셨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올가을 또는 내년 가을에는 복되고 풍성한 가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작품평 :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병수발을 하던 필자는 임종이 임종인 줄 모르고 아버지와 사별한 어린 시절의 사연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생애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드시고 싶은 흥시를 구해온 아들의 효성이 돋보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글을 이끌어가는 유연성이 우수합니다.

용서와 잊혀지지 않는 것들



조효선

‘하늘은 언제나 제 자리에서 모습을 바꾸가며 만물을 살피고 산과 들 역시 언제나 제 자리에서 인간과 조화를 이룬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곳에 와서 하게 된 생각이며 밖에서의 저라면 쾌락과 욕망만 쫓을 뿐 태도 없는 생각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 저를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처음부터 언제나 제 몸이고 제 생각과 제 마음이었는데 친하질 못하고 공존하지 못했는지 이제야 뒤를 돌아보며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한 제 모습을 적어보려 합니다. 부끄러움을 고백해 무엇을 얻으려는 것보다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살면서 용서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잊어버린 거’ 말고, ‘참는 거’ 말고, 말 그대로 ‘용서’ 사전적 의미로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끝냄’을 행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공정과 법칙을 교육받고 공과 사를 구별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히면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배웁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살아오면서 당연한 듯이 타인이 제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사과를 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 했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려 했고 손해를 보면 더 큰 손해를 입히려 했습니다. 타인이 먼저 했으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생각하며 말이죠. 저는 현재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살아가고 있는 장기수입니다. 절도를 한 것도 아니고 강도와 사기 같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사람을 해친 증범죄인이 되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감히 용서를 구하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못보고 '역지사지'로 생각하지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용서를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이야 평생 당연하지만 왜 용서를 바랬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용서를 빌고 주시는 벌 받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발버둥 쳤는지 우습고 슬프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 까닭은 얼마 전 겪은 일 때문입니다. 더운 날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운동장을 뛰면서 운동을 하던 사람과 몇 번 부딪치기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 왜 계속 치고 다니냐 따지듯 물어보니 돌아오는 건 주먹과 욕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주짓수와 킥복싱을 해오던 저라 아프기보단 필사적으로 참기 바빴습니다. 장기수이기에 맞으면 맞았지 절대 때리지 말자고 되내이며 직원분을 따라 관구실로 갔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처벌을 할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선뜻 답을 못하고 있을 때 직원분께서 적응을 못하는 친구라 한 번 넘어가는 건 어땠겠냐 하시길래 저는 '그럼 그 친구와 단둘이 대화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직원분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과 마주 앉았을 때 화가 났지만 먼저 왜 그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더워서 그랬다'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랬을까?' '난 이것도 용서 못하는데 용서받고 싶었구나'이 생각들이 들자 저는 '알겠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달라'하고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와 '난 용서했고 용서할 것이다' 생각했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하는데도 그뒤로 시간이 흐른 오늘까지도 속으로는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처벌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또 저를 뒤돌아보며 용서 못하는 자신이 용서를 바란다고 저를 꾸짖고 다독이며 마음을 추스리곤 합니다.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지만 그리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그 일로 스승을 만났고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만 여전히 용서중입니다. 항상 기회를 바랬고 용서를 바랬던 저를 떠올리며 말입니다.

작품평 : 하늘과 산과 들, 모든 자연은 제 자리에서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서도 사랑과 함께 인간이 행해야 할 덕목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평생에 행할 만한 일은 용서(恕)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도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강조하며, 인간 내면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우수합니다.

"수기"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문복희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내 생애 첫 수감생활



이종현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5일 법정구속 되었고,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 받아 상고심까지 치렀지만, 기각되어 수감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형 7년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저는 총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법정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전화로 저의 구속사실을 어머니께 알렸을 때 어머니는 보이스포싱인줄 알았답니다.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속을 많이 썩이긴 했지만,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과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예비군 불참으로 인한 30만원 벌금형, 과태료인줄 알았으나 벌금형이었던 오토바이 구조변경 미신고 벌금 50만원까지(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과자가 되어 있더라구요) 벌금형도 엄밀히 말하면 전과라고 하더라구요.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어머니께서 재판 선고 가기 전에 먹으라고 해놓으신 오징어 무국은 재판 다녀와서 먹으려 하였는데 결국 먹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꽤 흘렀고 같이 법정구속되어 격리 방에서 2주를 함께 보낸 사람들 중 2명은 사회에 복귀했고, 한명은 아직도 ○○교도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소식이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격리 방에 있을 때 입을 거라도 있나 찾아봤는데 그때 “새길”이라는 책자를 처음 접했습니다. 책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고, 시간이 좀 지난 새길이었지만 같은 처지의 수용자들의 글을

읽으며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읽을거리도 많고, 공감가는 글들이 많아서 저는 새길을 계절마다 잊지 않고 챙겨보는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 7월 7일이 만기출소인데, 사회에 복귀해서도 “새길지” 만큼은 계속해서 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었고,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시원한 얼음물 한잔 마시는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2~3주만 참고 견디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어김없이 짧게나마 찾아오겠지요?

삶을 살면서 나는 절대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충격은 생각보다 컸고, 상고심 기각 후에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결정이 나버렸고,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드니 상심이 컸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고,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늘 즐거움과 기쁨만 있다면 그 삶은 감각이 무뎌져 행복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채근담”에 나온 글 중 “낙극비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약으로 들어오신 분께 “낙극비생”이라는 말에 공감하시느냐구요. 맞는 말씀이라고 하시며 어느 날 보니 문에다가 낙극비생 네 글자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樂極悲生).

저는 수용생활을 하기 전에 “슬기로운 감빵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재판, 징역, 수감생활을 소재로 법무부와의 협업으로 만든 드라마였는데 정말 제 마음속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공중파 TV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판사, 재판, 교도소, 변호사가 직·간접적인 소재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곳에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건 사회적 관심이 그 부분으로 많이 가있는 것인가? 더 이상 다른 세상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6월 3일 ○○에서 ○○로 함께 이송을 왔고, 기결수가 된 후 한달 동안 함께 방 생활한 56세 어르신이 취사장으로 출역 결정이 되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당분간 이곳 ○○구치소에서 심리치료, 알콜 교육 등을 받으며 생활할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 남은 수용생활 기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저 스스로를 단련하여 나가고 싶습니다. 지난 새길에서 본 글귀 중 스펜서 존슨의 명언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배움으로 여긴다면 선물은 반드시 찾아온다.” 정말 힘이 되는 말입니다.

수용자 여러분 “I believe I can fly”라는 곡으로 유명한 미국의 팝, 알앤비 슈퍼스타였던 R.Kelly가 최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아시나요? 참 좋아하는 뮤지션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좋은 날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겠습니다.

수용자 여러분들 다들 힘들지만 힘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작품평 : 인생은 한 번뿐이어서 소중합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오징어 무국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실수 없는 삶이 어디 있겠는지요. 수감생활의 경험을 통해 내 생애 첫 수감이 아니라 내 생애 마지막 수감생활이 되리라 믿습니다.



집중인성교육을 끝내고, 내 자리로 돌아오려...

윤현로

가수 “양희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꽃이 다 피고 또 지고 난 후라 더 이상 꽃구경은 없는 줄 알았지만, 생각을 바꾸니 지금이 가장 찬란한 때입니다.

또한, 축구 황제라 불리는 펠레는 1,363회 경기에 출전해 1,282개의 골을 넣었습니다. 그가 천번째 골을 넣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골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까?” 펠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다음번 골입니다.”

어제 일은 모두 괜찮습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간들을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잊지마십시오 “나”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내 인생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비록, 눈물 나는 날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안 해보면 모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달랐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에 이전에 나를 버리고, 비우고, 용서해야 합니다. 긍정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조금 더 다가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1분만 투자해 오늘 하루를 감사와 반성의 시간으로 가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는 1,440분이고 그 중 1분은 0.1% 남짓의 짧은 시간이기엔 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지난 삶은 참으로 불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불행에 마모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맞닿으며 연마되었고 나의 삶 속에 한가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빛은 영원히 간직하여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베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관심있게 바라보며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행복한 소통의 시작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항상 제 앞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의 눈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경청하며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지만, 그 길이 끝나는 곳에도 항상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미천한 저를 위해 이런 소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법무부, 교정본부, 이하 교도관님 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은 우리가 선물을 줄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작품평 : 삶이 불행에 의해 마모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연마되는 것이란 말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겠다는 말을 새겨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화해가 시작되면 타인과의 인연도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의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2022년 2차 인성교육을 마치며)

이호석



인성교육, 도대체 인성교육이란 무엇일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된 인성교육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많은 부분을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다. 독특한 심리일 수도, 행동양식일 수도, 일련의 습관일 수도 있지만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서 수용생활 중인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손을 다치거나 발을 다치게 되어도 일은 할 수 있지만 다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친 마음을 치료해야지만 사회란 큰 관계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력을 이어받아 태어나고 모든 생명력의 연결고리는 탯줄로부터 시작이 되며 그 시작은 가족이라는 끈으로 연결이 된다. 탯줄은 끊어내면서부터 보이지는 않지만 가족이란 끈은 무엇으로도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되고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끈이 연결된다. 이런 연결을 통틀어 인간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단계에서 소통이란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관계는 매우 이해타산적이기에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상호 간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가에 따라 공감하는 소통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인간의 고민은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상대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나만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면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별은 어두워야지만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무료한 시간일 수도 있고 고귀한 시간일 수도 있다. 비록 담장 안에 갇힌 신세지만 진정한 성찰을 통해 온전하게 나의 자존감을 확립하고 회복해야 한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나라는 그릇을 오롯이 비워내고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담아낼 수 있는 만큼 진정 비워 낼 수 있는지. 결코 외부 환경이 변화를 줄 수는 없다. 자아와의 싸움에서 변화를 찾아야만 한다. ‘비운다’, 이 얼마나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말인가?

나는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나의 환경을 핑계 삼아 허비해온 시간들이 너무도 후회스러웠고 내가 당연시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너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부터 음식 그리고 가족 항상 곁에 있어서 몰랐던 소중한 것들이 떠올랐다. 인성교육 내내 가르침과 고민 끝에 나는 나라는 빈 그릇에 자존감을 채우려고 결심하였다.

내가 나라서 당연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내가 나를 아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아껴줄 것이다.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일깨워 지금의 이 소중한 시간을 출소 후 사용할 수 있는 마중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희망 없던 수용생활이 아닌 희망 있는 수용생활을 통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 낼 것이다.

많은 강사님들께서 어떤 금전적인 대가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마중물이라도 되어 주고자 봉사하는 마음에 감명을 받았고 교육에 도움을 주신 ○○구치소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작품평 : 사람은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라 만들어져가는 그릇이 아닐까요. 어두워야 별이 빛나듯 우리의 삶도 자신의 어두운 내면에서 빛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타인을 통해 발현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그릇이니 담는 것 또한 다르겠지요. 어떤 그릇이든 비어 준비되어있어야 새로운 각오도 담을 수 있습니다.

「새길 수용자 종합 문예지 2021 가을호」를 읽고...

전용현

도서선정의 이유 : 지금은 여름이 한창이지만 곧 돌아올 가을을 기다리며 제 자신의 과거도 돌아보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선정.

느낀 소감 : 새길 문예지에는 시와 수필 등이 있었는데 유독 마음을 이상하게도 심금을 울리는 시가 있었습니다. 전○○ - 처음 빚어본 송편의 재료는 슬픔이었지. 라는 시는 할머니께서 추석만 되면 빚어주시던 송편을 이곳저곳 나누곤 했는데 어찌나 많이 하시는지 심부름 십리길 가다 지쳐 몇개 집어먹고 개울가에 버린 적도 많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가시는 곳은 배웅을 할 수가 없어, 친구들 만나시면 드시라고 송편 한번 빚어본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자신이 개울가에 버린 건 음식만이 아니었더라. 다시 먹을 수 없는 그 맛이 생각나 입맛을 다십니다. 눈에서 흐르던 것이 세월타고 들어와 짠맛이 난다고 합니다. 모든 때가 추석만 같으란 말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추억의 기억, 이제는 맛볼 수 없는 사랑때문에 세월이 흐른 지금 눈물이 왜 짠지 알 것 같습니다.

양○○ - 송편이라는 시는 송편의 얼굴, 목소리, 가족까지 생각나게 하는 송편 하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이기 힘든 때에도 추석에 송편을 먹을때 만큼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건 행복의 전부라는 걸 알게 해준 시들입니다.

가을을 떠올리면 쌀쌀한 계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따뜻한 계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송편을 만들어먹고 심지어 이웃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과거엔 하교하며 올려다보던 저녁 가을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리운 부모님, 가족, 따뜻한 식사와 친구들, 옛정,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을린 얼굴 등 참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떠오릅니다.

이렇듯이 가장 풍족하고 따뜻한 계절은 가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작품평 : 가장 아름다울 때 낙엽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은 채움과 비움이 동시에 이뤄지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가을은 가장 커다란 보름달을 하늘에 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길에 실리는 작품들 속에서 또 다른 나라 발견하고, 위로와 기쁨을 찾으셨다니 이 또한 좋은 소식입니다.

“소감문” 부분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차재현



○○야 아빠 나이 20살 질풍노도의 시기에 엄마를 만났단다. 그때 너를 갖고 앞으로의 삶이 육아에 구속받고 자유가 사라진다는 부담감과 꽃같은 나이 20대 청춘을 육아로 보내기엔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생각이 목을 졸랐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자신도 비전조차도 없었던 그때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부딪혀 소중한 생명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부끄러운 아빠였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현실 육아에 구속되어 모든 걸 서로의 탓으로만 돌렸고, 결국 짧은 결혼생활을 마치고 헤어지게 되었어. 철없었던 최대 피해자는 당연히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았던 너의 뒤통이었지.

아빠는 도저히 혼자서는 너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을 찾아가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조부모님은 손자만은 살려야겠다는 심정으로 너를 거두어 주셨어. 그럼에도 아빠는 그런 은혜도 모른 채 혼자 살겠다고 도시로 나가 그래도 네가 생각이 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보러 갔지만 한심하게 생각하셨던 조부모님의 잔소리에 얼굴만 잠시 보고 오는 정도였었지.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 보아도 너와 놀아 준 기억도, 같이 해본 것도, 대화를 해 본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

아빠가 구속되었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너 아빠가 교도소에 수감 된 것을 몇 달 동안 몰랐었고

항상 일 핑계로 집도 연락도 자주 안하다보니 너는 아빠를 무심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서로 소통이란 게 없었으므로 아마도 당연했을거라 생각해. 아빠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겠지.

조부모님은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어서 몇 달이 지나서야 아빠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렸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너는 고아라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고 학교도 안가고 자퇴하길 원했잖아. 조부모님과 아빠의 의견은 소용이 없었고 이곳에서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아빠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어. 잘못된 아빠가 했는데 왜 고통은 네가 받아야 하는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어른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고작 고등학생인 네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힘들었을 테니까. 솔직히 아빠 자신조차도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데 넌 오죽하겠니.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미안함과 과오를 글로나마 전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줘야겠어. 혼자가 아닌 가족을 생각하고 늘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아빠도 아빠의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을테니 너무 겁먹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아빠로서의 믿음이 별로 없겠지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포기한다는 건 시련과 고난의 벼랑으로 밀어뜨리는 꼴밖에 되지 않을테니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뿐이었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너의 마음을 두드렸나봐. 고아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고 그건 네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편지에 녹아있음을 보고 편지 읽는 동안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큰일을 겪은 너는 오히려 자유가 구속된 좁은 곳에서 지내고 있을 아빠를 더 걱정해주고 있잖아. 지금껏 어린 애로만 생각했었는데 너의 편지를 받아보고 아빠보다 더 어른스러운 모습에 단 한번이라도 아빠 노릇을 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텐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부모에게 자식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이고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란걸 아빠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너 또한 믿음으로 아빠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마워.

너를 낳기만하고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살면서 힘은 들겠지만 가치있게 사는 꿈과 비전을 갖고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꿈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극복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으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해 꿈을 포기하지는 말아줘. 아빠는 너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의 현실에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힘들고 험한 사회에 홀로 던진 것만 같아 마음이 메어진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면 연로하신 조부모님을 잘 부탁하고 지금껏 마음에만 담아두고 하지못한말... 아빠는 진심으로 ○○ 널 사랑한다. 곧 군대 입대인데 몸 건강히 잘 다녀오고 진짜 남자가 되어서 우리 다시만나자. 미안하고 사랑한다!

작품평 : 처음이란 실수를 많이 하지요. 부부가 처음 되어 보고 아빠가 처음 되어 보고 자식이 처음 되어보고. 이제는 믿음으로 자식을 위해,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부자지간이니 어떠한 것도 극복이 되겠지요. ○○가 씩씩한 군인이 되어 사랑하는 아빠를 찾아올 것 같아요.

“서간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새길지 “여름호”를 읽고

송현윤

작품평

새길을 ‘너’라는 이인칭으로 친구같이 부르며 편하게 하고자 하는 말, 느낌 등을 잘 펼쳤습니다. 숨을 쉬어갈 수 있는 비타민 같은 존재는 극찬 중에 극찬이지요. 조금은 더 부드러운 책이 됐으면 하며 명언, 유머, 생활정보 등 첨부했으면 하는 바람에도 귀 기울여봅니다.

3년 만에 또다시 만난 참 친구같은 새길... 인사부터 한다. 오랜만이다. 너를 보면서 참 많은 사연도 읽었고 사람들의 생각도 느끼고 참으로 잘 만든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 같은 느낌... 밖에서는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 참으로 공감되는 마음에서 읽으면 이해가 된다. 그때의 장면들이 눈앞에 그려지고 다음 장이 벌써부터 궁금하다.

새길이란 단어가 참 그렇다. 그동안 잘못 걸어온 길 말고 새길로 가야한다. 늘 이 책 속에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다짐의 글이 가득하다.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항상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여러 사연들이 참 잘 어우러지고 구성이 참 잘 되었다는 걸 느낀다.

그해 여름에 있었던 사연들이 무더위 속 지친 우리들에게 조금은 숨을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라 여겨진다. 나는 그동안 많은 여름을 이겨왔지만 올해 여름이 너무도 힘들다. 유난히 더위를 타고 열이 많은 나로서는 이 여름이 싫지만 싫은 여름을 이겨내야 또다시 풍성한 가을이 찾아오리라 생각한다.

서간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냅니다”를 읽고서는 나를 키워주신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워 눈물이 났다. 태어난 지 17일 만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손주를 키우고 바라보시다 21살 때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새길지 “여름호”를 읽고

간절했다. 살아생전 더 잘해드리고 더 효도할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것은 남은 우리 자식들의 몫일 것이다.

글을 읽고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의 마음속 다짐하게 만드는 새길지... 4분기 4권의 책이 발행되는 걸 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이 『좋은 생각』이다. 그동안의 수용생활 속 『좋은 생각』과 새길지를 읽은 걸 보면 차로 한 트럭은 될 것이다. 새길지를 바라보면서 다만 한가지 아쉬운 건 『좋은 생각』처럼 좋은 명언이나 유머, 생활정보 등을 첨부하여 조금은 부드러운 책으로 수용자들에게 다가왔으면 한다. 이제 시작하는 수용생활에 이번 새길지 ‘그해 여름’을 읽고서 다시 한번 잘못 지내 온 내 지난 길이 잘못된 길임을 느끼고 다시 한번 새길로 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소중한 글을 읽게 해준 많은 수용자들에게 함께 힘내자는 위로를 해본다. 또한 나의 글로써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상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